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기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손민영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연구지원

공아영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발 간 사

대전광역시 “모든 시민의 복지수준을 적정기준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2016년 「대전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에서 공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와 포용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수립 이후 이행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 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시민·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요청되었다. 이에 2019년에 대전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후 3년간(2016~2018)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준 설정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시민복지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과제의 이행현황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성과관리지표 상당수가 지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시민복지기준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영역별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방향성 설정을 제시하였다. 실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전환하여 해당 지표에 따른 추이분석을 통해 대전 시민복지기준의 영역 도는 지표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지표 수준이 낮은 영역은 관련 과제를 설정하거나 신규 과제 개발을 통해 지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김기수 선임연구원을 책임연구자로, 송지현 선임연구원, 손민영 위촉연구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의 실증적, 학술적, 정책적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분야별 분과장과 분과위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연구 결과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실천과제로 연결되어 대전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 미

차 례

○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11
제1절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대한 평가	11
제2절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17
제3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 분석	31
제1절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31
제2절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46
제3절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57
제4절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68
제5절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80
제6절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89
제7절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99
제8절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07
제9절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22
제10절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37
제4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149
제1절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방안	149
제2절 대전시민복지기준 발전방안	156
○ 참고문헌	161

표 및 그림 차례

< 표 2-1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분야)별 이행현황	12
< 표 2-2 > 영역(분야) 및 과제별 총괄 평가 현황	13
< 표 2-3 > 영역(분야)별 종합 평가 현황	13
< 표 2-4 > 지표체계 구축 과정	19
< 표 2-5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돌봄)별 텔파이 전문가 구성 현황	19
< 표 2-6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별 텔파이 전문가 구성 현황	20
< 표 2-7 > 1차 텔파이 조사 후보지표(돌봄 영역)	22
< 표 2-8 > 1차 텔파이 조사 후보지표(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23
< 표 2-9 > 2차 텔파이 조사 후보지표(돌봄 영역)	24
< 표 2-10 > 2차 텔파이 조사 후보지표(소득, 주거, 건강 영역)	25
< 표 2-11 > 2차 텔파이 조사 후보지표(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26
< 표 2-12 >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돌봄 영역)	27
< 표 2-13 >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28
< 표 3-1 >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31
< 표 3-2 > 대전광역시 영아 보육서비스 충족률	32
< 표 3-3 > 전국 영유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33
< 표 3-4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34
< 표 3-5 >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36
< 표 3-6 > 대전광역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현황	36
< 표 3-7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	37
< 표 3-8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기관 현황	38
< 표 3-9 >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39
< 표 3-10 >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 표 3-11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	41
< 표 3-12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42
< 표 3-13 >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43
< 표 3-14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통합지표)	43
< 표 3-15 >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등급분포	44
< 표 3-16 > 전국 어린이집 평가결과확정 현황	45
< 표 3-17 >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46
< 표 3-18 > 대전광역시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48

〈 표 3-19 〉 전국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49
〈 표 3-20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50
〈 표 3-21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신고 접수 현황	51
〈 표 3-22 〉 전국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52
〈 표 3-23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발견율	53
〈 표 3-24 〉 전국 아동학대 발견율	54
〈 표 3-25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55
〈 표 3-26 〉 전국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56
〈 표 3-27 〉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57
〈 표 3-28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59
〈 표 3-29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60
〈 표 3-30 〉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	61
〈 표 3-31 〉 전국 노인학대 발견율	62
〈 표 3-32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현황	64
〈 표 3-33 〉 대전광역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건수	65
〈 표 3-34 〉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66
〈 표 3-35 〉 대전광역시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67
〈 표 3-36 〉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68
〈 표 3-37 〉 대전광역시 최종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69
〈 표 3-38 〉 대전광역시 장애인구 장애정도별 현황	70
〈 표 3-39 〉 전국 장애인구 장애정도별 현황	71
〈 표 3-40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72
〈 표 3-41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74
〈 표 3-42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	74
〈 표 3-43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인구 현황	74
〈 표 3-44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75
〈 표 3-45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77
〈 표 3-46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인구규모 현황	78
〈 표 3-47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79
〈 표 3-48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80
〈 표 3-49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81
〈 표 3-50 〉 전국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82
〈 표 3-51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84
〈 표 3-52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	85
〈 표 3-53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86

< 표 3-54 >	전국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88
< 표 3-55 >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89
< 표 3-56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현황	90
< 표 3-57 >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2020년도 생활임금 현황	91
< 표 3-58 >	전국 생활임금 현황	92
< 표 3-59 >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93
< 표 3-60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94
< 표 3-61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95
< 표 3-62 >	전국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96
< 표 3-63 >	대전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96
< 표 3-64 >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현황	97
< 표 3-65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98
< 표 3-66 >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99
< 표 3-67 >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현황	100
< 표 3-68 >	전국 공공임대주택 현황	101
< 표 3-69 >	대전광역시 기초주거급여 현황	102
< 표 3-70 >	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예산	103
< 표 3-71 >	전국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	103
< 표 3-72 >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현황	104
< 표 3-73 >	전국 민간임대주택 현황	105
< 표 3-74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106
< 표 3-75 >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107
< 표 3-76 >	대전광역시 자살사망률	108
< 표 3-77 >	전국 자살사망률	109
< 표 3-78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률	110
< 표 3-79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111
< 표 3-80 >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현황	112
< 표 3-81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113
< 표 3-82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114
< 표 3-83 >	대전광역시 치매상병자 수	115
< 표 3-84 >	전국 치매상병자 수	116
< 표 3-85 >	대전광역시 연간 치매관리비용	116
< 표 3-86 >	전국 연간 치매관리비용	117
< 표 3-87 >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118
< 표 3-88 >	7대 특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119

< 표 3-89 >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120
< 표 3-90 > 7대 특·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121
< 표 3-91 >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122
< 표 3-92 > 대전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123
< 표 3-93 > 전국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비교	124
< 표 3-94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125
< 표 3-95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자 현황	127
< 표 3-96 >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128
< 표 3-97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128
< 표 3-98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지원인원 목표, 성과비율 목표)	130
< 표 3-99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	131
< 표 3-100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자 및 학습기관 수	132
< 표 3-101 > 전국 평생학습참여율	133
< 표 3-102 > 대전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용 현황	134
< 표 3-103 > 학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이용 현황	135
< 표 3-104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현황	136
< 표 3-105 >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137
< 표 3-106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	138
< 표 3-107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139
< 표 3-108 > 마을만들기(유형별, 단계별) 지원 현황	140
< 표 3-109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현황	142
< 표 3-110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143
< 표 3-111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144
[그림 1-1] 연구 흐름도(추진과정)	11
[그림 3-1] 대전광역시 영아 보육서비스 충족률	35
[그림 3-2]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37
[그림 3-3]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39
[그림 3-4]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	40
[그림 3-5]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3
[그림 3-6] 대전광역시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	44
[그림 3-7]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등급분포	47
[그림 3-8]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51

[그림 3-9] 대전광역시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51
[그림 3-10]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53
[그림 3-1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사례 종결 후 재신고 현황	54
[그림 3-1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발견율	56
[그림 3-13]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	59
[그림 3-14]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62
[그림 3-15]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63
[그림 3-16]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	64
[그림 3-17]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수	67
[그림 3-18]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69
[그림 3-19] 대전광역시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70
[그림 3-20]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73
[그림 3-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	73
[그림 3-2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76
[그림 3-2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	76
[그림 3-24]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79
[그림 3-25]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82
[그림 3-26]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85
[그림 3-27]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율	87
[그림 3-28]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	88
[그림 3-29]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90
[그림 3-30]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대상자 수	94
[그림 3-3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시간급 수준	94
[그림 3-32]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96
[그림 3-3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98
[그림 3-34]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건수	100
[그림 3-3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	101
[그림 3-36]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103
[그림 3-37]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105
[그림 3-38]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비율	105
[그림 3-39]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107
[그림 3-40]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109

[그림 3-41] 대전광역시 자살사망률	112
[그림 3-42]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1시간 미만)	114
[그림 3-43] 대전광역시 보건의료 예산 비율	115
[그림 3-44]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117
[그림 3-45] 65세 이상 치매환자 유병률	117
[그림 3-46]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122
[그림 3-47]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율	124
[그림 3-48] 대전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비교	126
[그림 3-49]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129
[그림 3-50]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지원인원 목표)	132
[그림 3-51]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성과비율 목표)	132
[그림 3-52]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	135
[그림 3-5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용 현황	137
[그림 3-54]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예산	137
[그림 3-5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예산 현황	139
[그림 3-56]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	141
[그림 3-57]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동 수	142
[그림 3-58]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144
[그림 3-59]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	144
[그림 3-60] 인구 대비 활동인원 비율	145
[그림 3-61]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 비율	145
[그림 3-62]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인원	146
[그림 3-63] 사회복지 자원봉사 참여율	146
[그림 3-6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148

요 약

I. 연구 목적 및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2016년 설정 이후, 2019년도에 대전시민복지기준 3년간 (2016~2018)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함
 -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결과, 전체 55개 과제(시기미도래 1개 과제 제외) 중 44개 과제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원안대로 이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고, 총괄 평가에서도 미흡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지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영역별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역을 찾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현재 설정된 대전시민복지기준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영역별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방향성 설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II.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1.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대한 평가

- 복지기준선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운영체계는 사업이행에 평가가 집중되고 복지기준과 성과달성의 관리가 미흡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복지기준 과제 재설정

- 복지기준 수립 이후 객관적인 이행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과제를 변형하여 이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전광역시가 복지기준의 이행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지 않다 보니 복지기준에서 제시한 과제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불일치함
-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기준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표관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

- 복지기준의 성과관리지표 상당수가 지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복지기준의 달성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됨
-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생성이 가능한 것인지 생성주기가 명확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지표를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과제 담당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이렇게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설정한 성과관리지표를 복지기준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세부사업의 추진 여부가 아닌 복지기준의 달성 수준에 초점을 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및 내용 설정

- 2019년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함
- 영역별 과제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영역별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맞춤

□ 기존 지표 분석 및 후보지표 선정

- 국내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 체계 수립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 또는 신규 지표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검토할 후보지표를 선정함

□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참여자는 10개 분야로 구성함. 분야별로 1명의 분과장과 3~6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선정된 영역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함
- 1차 조사에서는 후보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개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을 최종 평가하여 지표의 우선 순위를 점점함

□ 성과관리지표 선정

- 10개 분야의 정책목표별 지표의 균형, 후보 지표 간의 중복이나 포괄성, 성과지표로서의 활용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9개의 지표를 선정함
- 이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의 시계열을 추출하여, 시계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함

Ⅲ.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 설정

□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함께 키우는 건강한 우리 아이」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로,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임

□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아동이 안전한 대전」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아동학대 발견율,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임

□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노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 학대 발견율, 노인복지사각지대 발굴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임

□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장애인의 차별없는 평등한 삶과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률임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 만들기」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로,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 가족친화 인증 기업체 수임

□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대전 복지 구축」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로,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긴급복지지원 건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수임

□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복지 실현임」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임

□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로, 자살사망률,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건강생활실천율, 우울감 경험률임

□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권과 삶의 질을 높일 다양성이 보장되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 평생학습참여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임

□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 설정

-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대전시민 모두가 가족처럼 믿고,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시민문화 조성」 임
-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로,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임

IV.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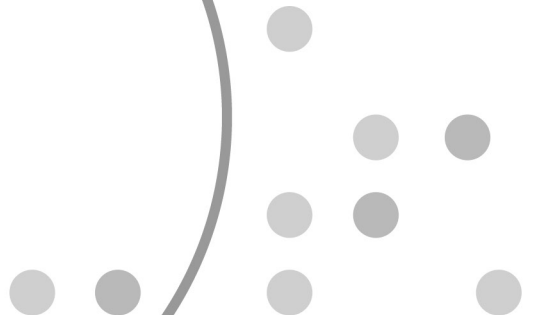
- 대부분의 영역별 성과관리지표가 생성·관리할 수 있으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 자체조사 후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 분석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영역(분야)별 측정 지표 선정 시 지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영역(분야)별 첫 번째 지표가 핵심 지표임
-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대전시민복지기준 발전방안

- 대전시민은 현재 복지 수준을 알 권리가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음. 이에 대전시민복지기준 지표 수준을 공표해야 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현재의 관심 수준으로 유지가 어려우므로, 공적 논의 구조가 필요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대전광역시 2016년 7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 대전」이라는 비전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준 설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6대 영역의 대전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함
 -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2016.2.)를 근거로 대전시민복지기준 6대 영역, 56개 과제를 설정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6대 영역(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이나, 분야로는 돌봄 영역 5개 분야(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돌봄자)와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를 포함하여 총 10개 분야임
 - 과제는 10개 분야별 1개의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성하여 총 10개 분야에 걸쳐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 46개로 총 과제는 56개임
- 대전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후 객관적인 이행현황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도에 대전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후 3년간(2016~2018)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함
 - 대전시민복지기준 6대 영역(10개 분야)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타당성과 추이분석, 56개 과제별 추진실적, 성과관리지표 분석,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함
 - 각 과제의 추진실적은 지난 3년간의 추진 내용, 추진목표에 따른 이행실적, 소요 예산에 따른 집행예산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 또한, 과제별 사업 개요, 추진실적, 이행노력, 성과관리지표 분석 등에 근거하여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실시함
 - 각 과제의 성과관리지표는 지표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지표 타당성이 확보된 과제의 경우에는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그렇지 못한 지표는 개선하였음

-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는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 시 참여한 연구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별 시민복지기준과 과제에 따른 추진실적, 지표 등을 분석하였음
-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결과, 전체 55개 과제(시기미도래 1개 과제 제외) 중 44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원안대로 이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고, 총괄평가에서도 미흡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전시민복지기준 55개 과제 중 원안 이행은 26개 과제, 변경 이행은 16개 과제로 전체 과제 이행은 42개로 나타남. 원안 이행률은 소득 영역이 가장 높고, 교육 영역이 가장 낮았음. 또한, 변경 이행을 포함한 이행률은 교육 영역이 가장 높았고, 주거 영역이 가장 낮았음
 - 대전시민복지기준 55개 과제 중 기존 과제는 33개, 신규 과제는 22개임. 기존 과제는 33개 중 29개, 신규 과제는 22개 중 13개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신규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민복지기준 과제별 총괄평가에 따르면, 56개 과제 중 미흡한 과제가 20개 과제, 우수한 과제가 22개 과제로 나타남. 즉, 전체 과제 중 1/3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행률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음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관련 과제, 성과지표, 과제별 세부 계획 등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준 설정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영역별 기준선 또는 전략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과제의 이행현황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과제의 실행 여부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지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즉, 영역별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역을 찾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현재 설정된 대전시민복지기준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각 영역별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방향성 설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설정된 대전시민복지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임
 - 지표체계를 설정하여 해당 지표에 따른 추이분석을 통해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영역 또는 지표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현재 지표 수준이 낮은 영역은 관련 과제를 설정하거나 신규 과제 개발을 통해 지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 개발의 방향성이 될 것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표체계의 설정과 지표에 따른 추이분석을 통해 대전광역시 시민복지기준의 수준을 확인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정함. 즉, 지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행해야 할 관련 과제나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기존 과제를 변경하고, 신규 과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대전광역시에 부여하기 위한 것임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분야)별 지표체계 수립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6대 영역(10개 분야)으로 설정되어 있고, 영역(분야)별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성과관리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영역(분야)별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지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지표를 설정하는 것임

□ 영역(분야)별 지표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 영역(분야)별 지표를 확정하여, 해당 지표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확인함. 지표는 전국, 대전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교분석함
- 지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정된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대체지표의 수준을 확인하였음. 다만, 향후 지표 생성을 통해 추이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제언

- 영역(분야)별 지표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도출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정책 개발, 향후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설정 또는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발전방안 도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대전시민복지기준 관련 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준 수립 연구 자료 검토, 복지기준 성과관리, 성과평가, 이행평가 등 성과관리체계 연구 자료 검토
- 사회보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 지표체계 관련 선행 연구 자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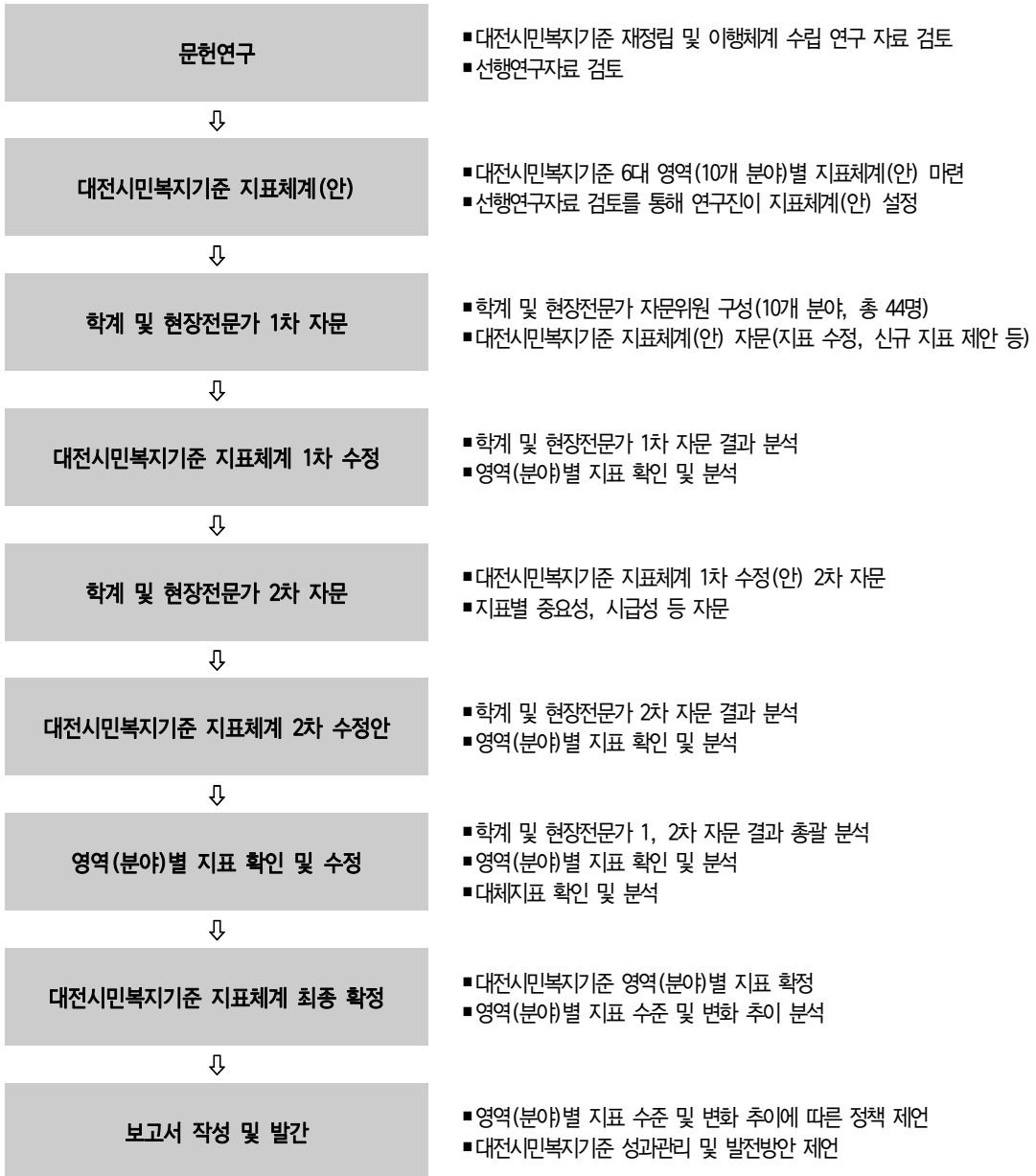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분야)별 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함. 자문위원은 10개 분야로 구성하되, 분야를 총괄하는 분과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 분과장은 기존 연구와의 맥락을 같이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실시한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분과위원도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교체하거나 추가로 전문가를 확보하여 구성하였음
- 분야별로는 분과장을 포함하여 영유아 돌봄 분야, 아동 돌봄 분야, 노인 돌봄 분야, 장애인 돌봄 분야,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소득 분야는 각 4명, 주거 분야와 건강 분야 각 5명, 교육 분야 6명, 지역공동체 분야 4명으로 총 44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함
- 자문위원은 대전시민복지기준 해당 분야별 지표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개선의견, 신규 지표 제안 등 2회에 걸쳐 자문의견을 제시함
- 분과장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상호 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분야의 시민복지기준 지표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의견을 제시함

□ 연구진 회의

-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 자료, 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련 지표의 생성 및 분석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함

[그림 1-1] 연구 흐름도(추진과정)



제2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제2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제1절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대한 평가¹⁾

1. 복지기준 달성 수준 평가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 대상

- 2016년 대전시민복지기준 발표 후, 추진사업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행평가를 실시함
- 이행평가 대상은 복지기준 6대 영역별 56개 과제이며,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세부과제 등에 대해서는 사업 대체(유사 사업) 등을 고려토록 함
- 복지기준은 6대 영역, 10개 분야, 56개 과제 이행현황을 원안 이행, 변경 이행, 미이행, 시기미도래로 정리함. 시기미도래 1개 과제를 제외한 55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함
- 복지기준 이행평가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총 3개년도임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 방법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는 6대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타당성과 추이분석, 56개 과제별 추진실적, 성과관리지표,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함
- 과제의 추진실적은 3년간의 과제 추진내용, 추진목표에 따른 이행실적, 소요예산에 따른 집행예산 등을 분석함. 추진실적은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였고, 이를 우수(90% 이상), 미흡(80~89%), 부진(79% 이하)으로 평가함
- 적정기준과 최저기준, 각 과제의 성과관리지표 평가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를 활용함.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1) 제1절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대한 평가는 대전시민복지기준 제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김기수 외, 2019)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 결과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이행현황 평가 결과, 55개 과제 (시기미도래 1개 과제 제외) 중 42개 과제(76.4%)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행한 과제 42개 중 16개 과제는 변경(유사 사업)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원안 이행은 26개 과제로 나타나 원안 이행률은 47.3%임

〈 표 2-1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분야)별 이행현황

단위: 개, %

분야	과제 수	이행			미이행	이행률	
		원안 이행	변경 이행	계		원안 이행률	원안+변경 이행률
전체	55	26	16	42	13	47.3	76.4
돌봄	영유아	5	2	3	5	0	40.0
	아동	3	2	0	2	1	66.7
	노인	6	2	0	2	4	33.3
	장애인	4	4	0	4	0	100.0
	가족돌봄자	5	3	1	4	1	60.0
	소계	24	13	4	17	6	56.5
소득	7	5	0	5	2	71.4	71.4
주거	5	2	0	2	3	40.0	40.0
건강	6	4	1	5	1	66.7	83.3
교육	9	1	8	9	0	11.1	100.0
지역공동체	5	1	3	4	1	20.0	80.0

※ 시기미도래 1개 과제(영유아 돌봄 분야) 제외

- 복지기준 6대 영역, 10개 분야, 56개 과제의 총괄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시기미도래 1개 과제의 경우에도 세부 사업은 수행된 관계로 전체 56개 과제의 총괄 평가를 분석함
- 과제별 총괄 평가 현황은 56개 과제 중 탁월 2개 과제(3.6%), 우수 20개 과제(35.7%), 보통 14개 과제(25.0%), 미흡 14개 과제(25.0%), 매우 미흡 6개 과제(10.7%)임. 56개 과제 중 우수(우수+탁월)는 22개 과제(39.3%), 미흡(매우 미흡+미흡)은 20개 과제(35.7%)임

- 10개 분야별로 총괄 평가를 살펴보면, 우수(우수+탁월)한 과제 비율은 건강 분야(83.3%), 지역공동체 분야(80.0%), 장애인 돌봄 분야(75.0%), 영유아 돌봄 분야(66.7%)임
- 반면 미흡(매우 미흡+미흡)한 과제 비율은 노인 돌봄 분야(100.0%), 주거 분야(80.0%), 교육 분야(44.4%),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40.0%)의 순임

〈 표 2-2 〉 영역(분야) 및 과제별 총괄 평가 현황

단위: 개수

영역(분야)		과제 수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전체		56	6	14	14	20	2
돌 봄	영유아	6	-	-	2	4	-
	아동	3	-	1	1	1	-
	노인	6	1	5	-	-	-
	장애인	4	-	-	1	2	1
	가족돌봄자	5	-	2	3	-	-
	소계	24	1	8	7	7	1
소득		7	1	1	1	3	1
주거		5	2	2	-	1	-
건강		6	-	-	1	5	-
교육		9	1	3	5	-	-
지역공동체		5	1	-	-	4	-

- 복지기준 10개 분야별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돌봄 분야, 장애인 돌봄 분야, 건강 분야, 지역공동체 분야 등 4개 분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노인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3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3 〉 영역(분야)별 종합 평가 현황

영역(분야)		종합 평가	영역(분야)	종합평가
돌 봄	영유아	우수	소득	보통
	아동	보통	주거	미흡
	노인	미흡	건강	우수
	장애인	우수	교육	미흡
	가족돌봄자	보통	지역공동체	우수

※종합평가 등급은 5점 척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임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 결론

- 복지기준 이행현황 평가의 성과는 복지기준 발표 후 3년간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복지기준의 10개 분야별 과제의 추진상황, 추진목표 달성률, 예상 집행률 등을 점검함
- 복지기준 3년(2016년~2018년)간의 이행현황 평가 결과, 미흡한 과제 및 변경 이행이 존재하나 다수의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2. 대전시민복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복지기준선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현행 운영체계는 과도한 사업으로 인해 행정부의 사업이행 피로도가 높고, 사업이행에 평가가 집중되어 복지기준과 성과달성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행 운영체계로 인해 ‘기준선’ 달성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대전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복지기준 과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기준 과제 재설정

- 대전광역시시는 관련 부서에서 연 1회 과제별 예산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점검을 통한 개선에는 소극적이었음
- 복지기준 수립 이후 객관적인 이행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과제를 변경(유사 사업)하여 이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행한 과제 42개 중 16개 과제를 변경(유사 사업)하여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이행한 과제는 절반에 못 미침
- 원안 이행 비율이 낮은 것은 복지기준에서 제시한 과제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사업과의 불일치로 발생함. 이는 대전광역시가 복지기준의 이행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지 않다 보니 복지기준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자, 과제별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이해도가 낮아 발생한 문제로 보임

- 특히 교육 영역의 경우 대다수 과제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9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변경(유사 사업)하여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협업체계 없이는 향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기준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복지기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세부 사업의 설정은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사회·환경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복지기준 56개 과제를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삭제해야 할 과제는 삭제하고, 과제 간 통폐합이 필요한 과제는 통폐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과제명의 변경, 과제의 삭제, 과제 간 통폐합 등을 통해 과제를 재설정하되, 현재 수준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복지기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면 유지하여야 함
- 또한 과제명과 세부 사업명을 일치시키어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표관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

- 대전시가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하지만 현재의 성과지표 체계의 한계로 인해 기준의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를 현재의 성과관리지표로는 확인할 수 없음
- 실제로 복지기준의 성과관리지표 상당수가 지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과제별 성과관리지표를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 등의 기준으로 지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의 지표가 삭제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성과지표는 다양한 사업이 기준에 기여하는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산출을 단순 집계하고 있으며, 생성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생성되

지 않기도 함. 즉 성과관리지표가 복지기준의 달성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됨

- 이에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생성이 가능한 것인지 생성주기가 명확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지표를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설정해야 함. 과제 담당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이렇게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설정한 성과관리지표를 복지기준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세부사업의 추진 여부가 아닌 복지기준의 달성 수준에 초점을 둔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대전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1. 복지기준 재구조화 설정방법 및 과정

□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및 내용 설정

- 복지기준 재구조화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음. 복지기준의 이행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진 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해 재구조화 방향, 영역별 성과관리지표 등을 검토함
- 2019년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고, 영역별 과제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영역별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조정함
- 연구진과 담당공무원 간 회의를 통해 향후 성과관리지표 선정을 위하여 기준과 6개 영역별(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지표를 검토함
- 또한 영역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과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2차례 자문회의를 실시함

□ 기존 지표 분석 및 후보지표 선정

- 국내 정책지표 및 사회 관련 지표를 검토하고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 또는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검토할 후보지표를 선정함
- 복지기준선 기존 성과관리지표와 추가 지표를 6개 영역(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10개 분야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지표가 정책주기 및 생성주기에 따른 지표 분류에서 투입, 산출, 성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는 양적 연구조사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반복적으로 취합한 후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질적 연구조사 기법임

- 델파이 기법은 특히 ① 조사장소의 물리적 제한성 극복, ② 특정 분야 전문가의 정보를 통한 응답 결과의 신뢰성 제고, ③ 익명성 보장에 자유로의 의견 제시, ④ 반복적인 응답 과정 중 전문가 집단의 응답 결과 확인 및 판단 등의 장점을 지님
- 회수별 설문지는 참여 전문가의 응답을 통해 매회 새로운 설문지로 재구성하였으며, 설문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응답의 동질성이 제고되며 최종적으로 일정한 합의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함. 수많은 사회영역 관련 지표 중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취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영역 간 내용의 차이가 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단순 지표 선정 시 한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를 위해 대전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여 기준선과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발함
- 델파이 조사 참여자는 10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로 1명의 분과장과 3~6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분과장은 10개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2016.2.)에 참여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함
- 분야별 위원은 지난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2019)에 참여한 위원과 분과장들이 추천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 선정된 영역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 성과관리지표 선정

- 델파이 조사 결과, 10개 분야의 정책목표별 지표의 균형, 후보 지표 간의 중복이나 포괄성, 성과지표로서의 활용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9개의 지표를 선정함

〈 표 2-4 〉 지표체계 구축 과정

단계	기간	내용
사전준비	2020. 04. ~ 2020. 09.	- 연구진 및 부서 협의를 통한 성과관리 지표 선정 - 연구진 및 분과장 협의를 통한 델파이 34명의 전문가 선정 -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지 작성
델파이 조사 실시	2020. 10. ~ 2020. 11.	- 1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평가 및 정리	2020. 11. ~ 2020. 12.	-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정리 및 평가 - 성과관리지표 추출

〈 표 2-5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돌봄)별 델파이 전문가 구성 현황

영역	분과	역할	성명	소속	직책
돌봄	영유아	분과장	문영경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분과위원	김정미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유재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목련어린이집)	원장(회장)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성화어린이집)	원장(분과장)
	아동	분과장	류한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	박미애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신종근	평화의마을아동복지센터	원장
			김혜영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노인	분과장	오인근	참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	이상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재룡	유성구노인복지관	관장
			권성애	인혜요양원	시설장
	장애인	분과장	이재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분과위원	설희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선임평가사
			김지희	행복한우리복지관	사무국장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족돌봄자	분과장	배지연	대전세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박사
		분과위원	김윤희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임현숙	대전광역시기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장온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표 2-6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별 델파이 전문가 구성 현황

영역	역할	성명	소속	직책
소득	분과장	김 구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분과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승민	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센터	센터장
		우하영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유성구지역자활센터)	협회장(센터장)
주거	분과장	가침희	미래건축전략연구소	대표이사
	분과위원	정소이	내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재은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강의전담교수
		김영주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임오연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건강	분과장	이근찬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분과위원	유제춘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회사회	회장
		김철웅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박지은	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교육	분과장	허창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분과위원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 대외협력국	국장
		최정묵	더함시민스쿨레	대표
		박지현	마을교육공동체포럼	공동대표
		신태연	페토	대표
		이희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역공동체	분과장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임송은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신정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교육팀
		장용석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2. 지표체계 구축 과정

□ 후보지표 선정과정

- 복지기준의 재구조화의 핵심은 지표관리 중심체계로의 전환으로 영역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임
- 복지기준의 성과관리지표 선정을 위한 후보지표로 일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기존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지표와 국내의 정책지표, 주요 사회 관련 지표들임
- 2019년에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영역별 지표를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 등의 기준으로 지표 타당성을 평가하여, 개선 지표(안)을 제안하였음. 개선 지표(안)는 지표 타당성 평가 기준(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에 부합하는 개선 지표이나, 일부 지표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더불어 검토한 주요 지표체계들은 지역사회보장지표, 대전 사회조사,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임
- 이 지표체계들은 대전시민복지기준이 지향하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1차 델파이 조사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영역별 44명의 전문가들이 복지기준선의 성과관리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후보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함
-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지표의 적합성 평가기준은 지표가 해당 영역(분야)의 비전과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적절한지의 여부임
- 이를 위해 10개 분야별(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후보지표에 대해 정책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
- 또한 후보지표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분야별 정책 평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표의 추천 또는 기타 의견을 주관식으로 요청함
- 그 결과 신규 지표 30개와 수정 지표 8개가 도출됨. 추천된 지표 중 1회성 조사로 그쳤거나, 부정기 조사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 개념적 정의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제 생성되고 있지 않은 지표들은 후보지표에서 제외함

< 표 2-7 > 1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돌봄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돌봄	영유아	1-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2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3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1-4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5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아동	2-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2-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2-3 아동학대 발견율
		2-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노인	3-1 노인학대 발견율
		3-2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3-4 노인여가활동참여율
		3-5 노인일자리사업참여율
		3-6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3-7 노인복지사각지대발굴률
	장애인	4-1 장애인의무고용률(공공)
		4-2 여성장애인 돌봄 신청률
		4-3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4-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4-5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4-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4-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가족돌봄자	5-1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5-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5-3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5-4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공공)

〈 표 2-8 〉 1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소득	6-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2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6-3	자활사업참여율 성공률
	6-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6-5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6-6	기초연금수급률
	6-7	장애인연금수급률
주거	7-1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7-2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7-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7-5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7-6	주차장 확보율
	7-7	주거환경만족도
건강	8-1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8-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8-3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8-4	건강생활실천율
	8-5	119 구급활동 실적
	8-6	우울감 경험률
	8-7	자살사망률
	8-8	의료서비스 만족도
교육	9-1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9-2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투자액
	9-3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졸업생 비율
	9-4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
	9-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9-6	평생학습참여율
지역공동체	10-1	마을만들기(유형별, 단계별) 지원 사례 수
	10-2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10-3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
	10-4	자원봉사등록률
	10-5	자원봉사참여율
	1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여 기업 수(기부금액)

□ 2차 델파이 조사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선평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을 최종 평가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점검함
- 1차 델파이 조사의 분야별 전체 전문가 평균점수를 제시하여, 10개 분야의 지표에 대해 중요도 우선순위,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평가함
- 10개 분야별 지표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게 함

〈 표 2-9 〉 2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돌봄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돌봄	영유아	1-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2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1-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4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
		1-5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아동	2-1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2-2 아동학대 발견율
		2-3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2-4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5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노인	3-1 노인학대 발견율
		3-2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3-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3-4 노인여가활동참여율
		3-5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3-6 노인복지사각지대발굴률
		3-7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필수교육률
		3-8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률
	장애인	4-1 장애인의무고용률(공공)
		4-2 여성장애인 돌봄 신청률
		4-3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4-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4-5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4-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4-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가족돌봄자	5-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5-2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5-3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공공)
		5-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
		5-5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소요) 예산

〈 표 2-10 〉 2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소득, 주거, 건강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소득	6-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2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6-3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6-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6-5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6-6	기초연금수급률
	6-7	장애인연금수급률
	6-8	긴급복지지원 건수
	6-9	근로장려금 지원 건수
	6-10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수
주거	7-1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7-2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7-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7-5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7-6	주거환경만족도
건강	8-1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8-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8-3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8-4	건강생활실천율
	8-5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8-6	우울감 경험률
	8-7	자살사망률
	8-8	의료서비스 만족도
	8-9	미충족의료율
	8-10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장애율
	8-11	아동청소년 치아우식증경험률
	8-12	건강검진율

〈 표 2-11 〉 2차 델파이 조사 후보지표(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교육	9-1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9-2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
	9-3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졸업생 비율
	9-4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
	9-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9-6	평생학습참여율
	9-7	청소년 진로 성숙도
	9-8	지역 내 청년자립 환경
	9-9	교육환경(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9-10	학교 민주주의
	9-11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9-12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지역공동체	10-1	마을만들기(유형별, 단계별) 지원 사례 수
	10-2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10-3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
	10-4	자원봉사참여율
	10-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여 기업 수(기부금액)
	10-6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

3. 최종 성과관리지표 선정

- 1~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각 후보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관리지표를 작성함
 - 전문가들이 평가한 지표의 중요도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순위가 높은 지표 순으로 결정함
 - 다만, 선정된 지표들의 유사성 및 조사주기,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표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재조정함
- 이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의 시계열을 추출하여, 시계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재조정함

〈 표 2-12 〉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돌봄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돌봄	영유아	1-1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1-2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1-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4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5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
	아동	2-1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2-2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2-3	아동학대 발견율
		2-4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노인	3-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3-2	노인학대 발견율
		3-3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률
		3-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률
		3-5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장애인	4-1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4-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4-4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4-5	여성장애인 돌봄 신청률
	가족돌봄자	5-1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5-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
		5-3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소요) 예산
		5-4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공공)

〈 표 2-13 〉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영역)

영역(분야)	지표번호	지표명
소득	6-1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3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6-4	긴급복지지원 건수
	6-5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수
주거	7-1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7-2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7-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건강	8-1	자살사망률
	8-2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8-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8-4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8-5	건강생활실천율
	8-6	우울감 경험률
교육	9-1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9-2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9-3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
	9-4	평생학습참여율
	9-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9-6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
지역공동체	10-1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10-2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
	10-3	마을 만들기(유형별, 단계별) 지원 사례 수
	10-4	자원봉사참여율
	10-5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

제3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 분석

제3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지표 분석

제1절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함께 키우는 건강한 우리 아이」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임. 즉,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임

〈 표 3-1 〉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1-1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0\sim 2\text{세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 / 0\sim 2\text{세 영유아 수}) \times 100$
1-2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text{직무역량강화교육+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참여자 수} / \text{총 보육교직원 수}) \times 100$
1-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text{시간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 이용 아동 수} / \text{6세 미만 아동 수}) \times 100$
1-4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text{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text{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times 100$
1-5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	$(\text{평가인증제 A, B 등급 어린이집 수} / \text{평가 인증 받는 어린이집 수}) \times 100$

2. 영유아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영유아 1-1)

-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은 0~2세 영유아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 현황
 - 대전광역시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은 2017년 78.4%, 2018년 84.4%로 나타나, 증가 추세에 있음
 - 2018년 기초자치단체별로 영아 보육서비스 충족률을 살펴보면, 대덕구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구와 중구가 각각 86.8%, 서구 83.2%, 유성구 81.0% 순으로 나타남

〈 표 3-2 〉 대전광역시 영아 보육서비스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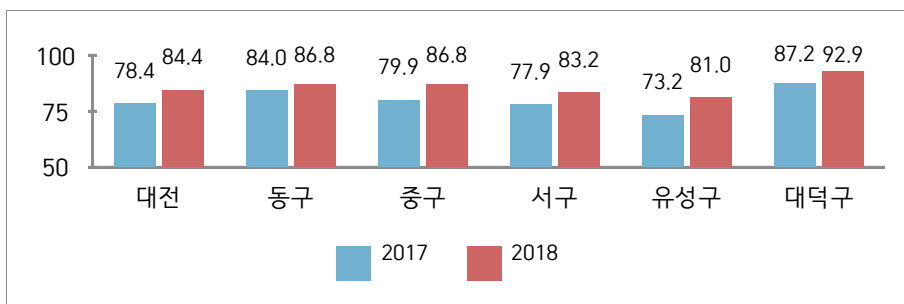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	2018
대전		78.4	84.4
기초자치단체	동구	84.0	86.8
	중구	79.9	86.8
	서구	77.9	83.2
	유성구	73.2	81.0
	대덕구	87.2	92.9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 그림 3-1 〕 대전광역시 영아 보육서비스 충족률

단위: %



□ 전국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은 증가 추세임

- 전국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은 2017년 71.2%, 2018년 76.5%로 나타나 증가 추세임. 대전광역시의 보육서비스 충족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7대 특광역시 중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84.4%, 대구광역시 76.0%, 울산광역시 75.7%, 인천광역시 74.0%, 부산광역시 71.4%, 서울특별시 69.4% 순임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영유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표 3-3 〉 전국 영유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단위: %

구분	2017	2018
전국	71.2	76.5
서울	63.4	69.4
부산	65.3	71.4
대구	70.4	76.0
인천	69.0	74.0
광주	84.4	88.3
대전	78.4	84.4
울산	69.0	75.7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2)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영유아 1-2)

-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총 보육교직원 중 직원역량강화교육 참여자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참여자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957명으로 전년 대

- 비 0.5% 증가함.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은 보육교직원들이 매년 받는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한 직무역량강화교육과 보육컨설팅으로 제한함. 직무역량강화교육과 보육컨설팅 참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교육 참여자와 평가인증 및 보육과정 컨설팅 참여자를 통해 산출함
 -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02명, 2019년 2,287명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에 있음
 - 평가인증 및 보육과정 컨설팅 참여자는 2018년 3,506명, 2019년 4,621명으로 나타남.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세부 프로그램이 달라지며, 교육 참여자는 전년 대비 증가함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2018년 39.9%, 2019년 65.2%으로 나타나, 교육 참여자 수가 대폭 증가함

〈 표 3-4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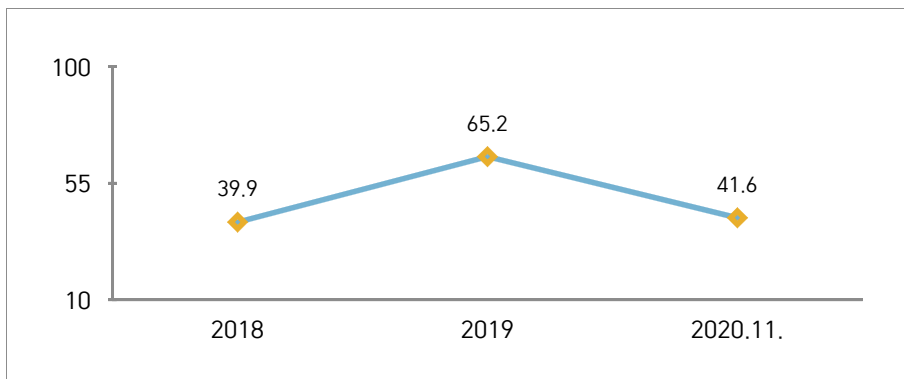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총 보육교직원 수*	10,545	10,597
보육교직원직급별 교육 참여자 수**	702	2,287
평가인증 및 보육과정 컨설팅 참여자 수**	3,506	4,621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39.9	65.2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3-2]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단위: %



3)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영유아 2-3)

-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시간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증가로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특히 한부모 가정 등에서 경제적 활동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유아의 지적·정서적·신체적 균형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시간연장형(야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시간제 보육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임. 이용대상은 6~36개월까지의 영유아이며, 지원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유무에 따라 기본형, 맞벌이형으로 구분됨
 - 시간연장형 보육은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이 있음. 시간연장 보육은 기존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이며, 24시간 보육은 기존 보육시간(주간)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휴일 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 보육을 하는 것임
 -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생성되고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로 산출함. 추후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표를 생성·관리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와 함께 이용률을 산출하여 지표를 제시해야 함
-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대전광역시 0~5세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8,013명, 2018년 71,977명, 2019년 66,304명으로 나타나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0~5세 아동 현황은 매년 약 7.7%p 감소함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9년 1,611명으로 전년 대비 3.7%p 감소함.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4%로 나타남

〈 표 3-5 〉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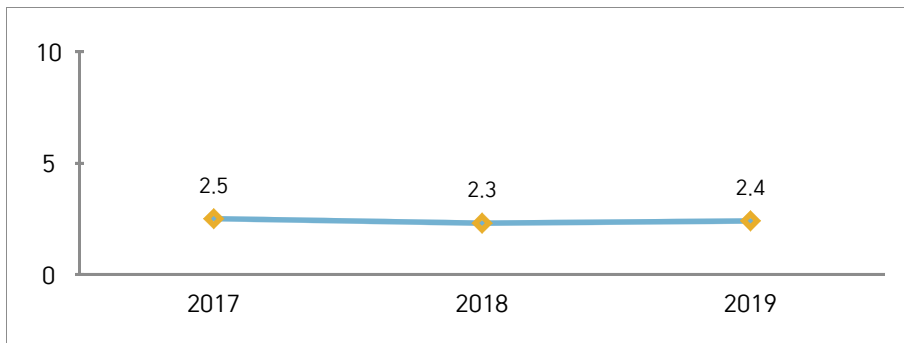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0~5세 영유아 수*	78,013	71,977	66,304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	1,913	1,673	1,611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2.5	2.3	2.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3-3]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 대전광역시 시간제보육운영기관 현황

- 대전광역시 시간제보육운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7개 보육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0%p 감소함
- 2018년 17개 제공기관에서 19개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4.%p 감소함

〈 표 3-6 〉 대전광역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기관 수	21	21	17
운영반	21	23	19
관리기관	1	1	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현황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9년 1,611명으로 전년 대비 3.7%p 감소함.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일반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7년 67명, 2018년 37명, 2019년 37명으로 나타나 2017년 이후 감소한 경향을 보임
- 2019년 기준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37명 중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이 23명,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14명임
- 특수보육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9년 1,574명으로 전년 대비 3.8%p 감소함.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1,574명 중 99.6%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함
- 특수보육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표 3-7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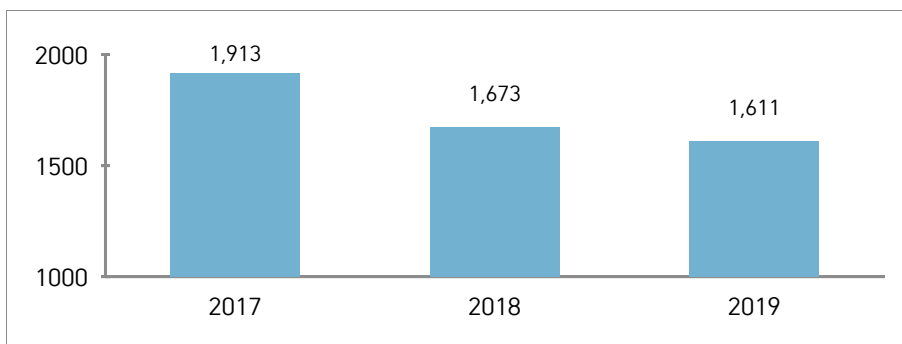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계	시간연장	휴일	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2017	1,913	67	40	27	1,846	1,832	0	14
2018	1,673	37	17	20	1,636	1,627	0	9
2019	1,611	37	23	14	1,574	1,567	0	7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3-4]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기관 현황

- 대전광역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전년 대비 11.8%p 감소함.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기관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일반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2017년 22개소, 2018년 14개소, 2019년 13개소로 나타나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특수보육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2017년 421개소, 2018년 419개소, 2019년 369개소로 나타나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표 3-8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일반어린이집 수			특수보육어린이집 수			
		계	시간연장	휴일	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2017	454	22	14	8	421	417	2	2
2018	433	14	7	7	419	415	2	2
2019	382	13	8	5	369	365	2	2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4)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영유아 1-4)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생성·관리가 되고 있으나,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표는 생성이 되고 있지 않음. 향후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와 이용 아동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통해 대전광역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3.9%, 2017년 4.4%, 2018년 4.5%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대덕구가 1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구 4.1%, 동구 4.0%, 중구 3.7%, 유성구 3.2% 순임

〈 표 3-9 〉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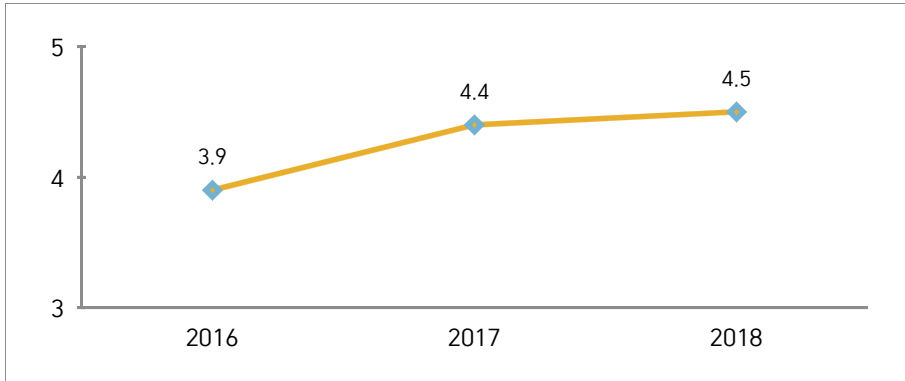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대전		3.9	4.4	4.5
기초자치단체	동구	4.1	4.2	4.0
	중구	3.3	3.5	3.7
	서구	4.0	4.0	4.1
	유성구	1.6	3.0	3.2
	대덕구	9.3	9.9	10.7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3-5]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 대전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2016년 12.1%, 2017년 12.9%, 2018년 14.2%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서울이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5.7%, 인천광역시 11.9%, 대구광역시 8.8%, 울산광역시 8.2% 등의 순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다수 광역시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표 3-10 〉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전국	12.1	12.9	14.2
서울	28.4	31.6	35.1
부산	14.6	14.7	15.7
대구	4.6	6.0	8.8
인천	10.7	11.2	11.9
광주	5.0	4.9	5.2
대전	3.9	4.4	4.5
울산	6.4	6.9	8.2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 대전광역시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41개소, 2018년 147개소, 2019년 141개소, 2020년 10월 기준 142개소임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는 2017년 2,265개소, 2018년 2,356개소, 2019년 2,355개소, 2020년 10월 기준 2,341개소로 나타남
-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부산광역시가 17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141개소, 인천광역시 136개소, 대구광역시 114개소, 울산광역시 103개소 등의 순임

〈 표 3-11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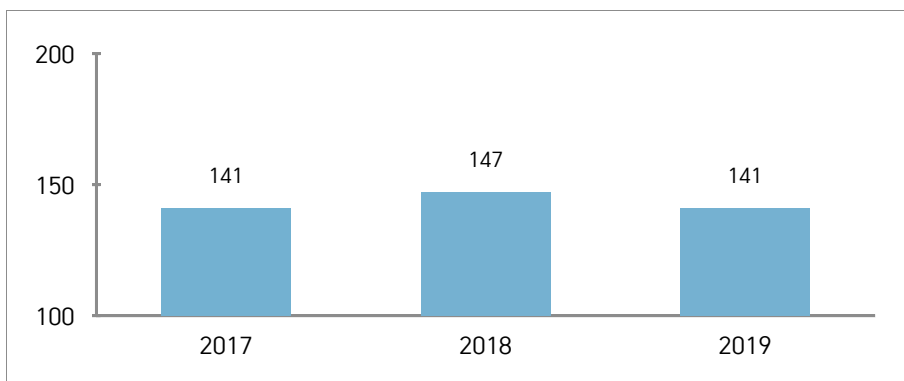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10.
전국	2,265	2,356	2,355	2,341
부산	143	160	174	185
대구	113	117	114	106
인천	124	133	136	138
광주	87	97	90	90
대전	141	147	141	142
울산	97	106	103	10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그림 3-6 〕 대전광역시 공공형 어린이집 기관 수

단위: 개소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9,379명, 2020년 10월 기준 96,663명으로 나타남.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020년 10월 전체 보육아동 1,242,755명 대비 96,663명으로 7.8%를 차지함
- 공공형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 기준 민간어린이집이 75,9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19,850명, 법인·단체 등 740명, 사회복지법인 121명으로 나타남

< 표 3-12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20. 10.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계
공공형	89,120	19,242	897	120	109,379	75,952	19,850	740	121	96,663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5)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영유아 1-5)

-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은 평가인증제에서 A, B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 특히 2018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평가인증제도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됨
 -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차(2006년~2010년), 2차(2010년 2017년 10월), 3차(2017년 11월~2019년 6월)까지 시행됨. 향후 평가인증 주기에 맞추어서 평가에 참여한 어린이집 수 및 등급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생성되는 지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 2006년 시행 이후 해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이 지속해서 증가함

〈 표 3-13 〉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10.
참여확정(A)	3,525	4,956	6,605	8,446	13,328	13,328	13,036	11,682	11,747	11,210	6,285
인증통과(B)	2,804	4,181	5,464	7,303	11,506	11,506	12,618	11,512	11,362	10,813	5,780
통과율(B/A)	79.5	84.4	82.7	86.5	86.3	86.3	96.8	95.5	96.7	96.5	92.0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

-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해마다 A등급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함
- 연도별로 평가인증의 A등급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인증과 재인증 어린이집을 비교한 결과 재인증 어린이집의 A등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14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통합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10.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전체	85.1	12.8	2.1	89.3	9.6	1.1	89.5	9.6	0.9
신규인증	81.1	16.2	2.6	88.2	10.5	1.4	88.9	9.9	1.2
재인증	86.1	12.0	2.0	89.7	9.3	1.0	89.8	9.4	0.8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등급분포

-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평가등급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설립유형의 어린이집에서 A등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의 A등급 비율이 85.0%로 전국 평균 79.0%보다 높은 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A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표 3-15 〉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등급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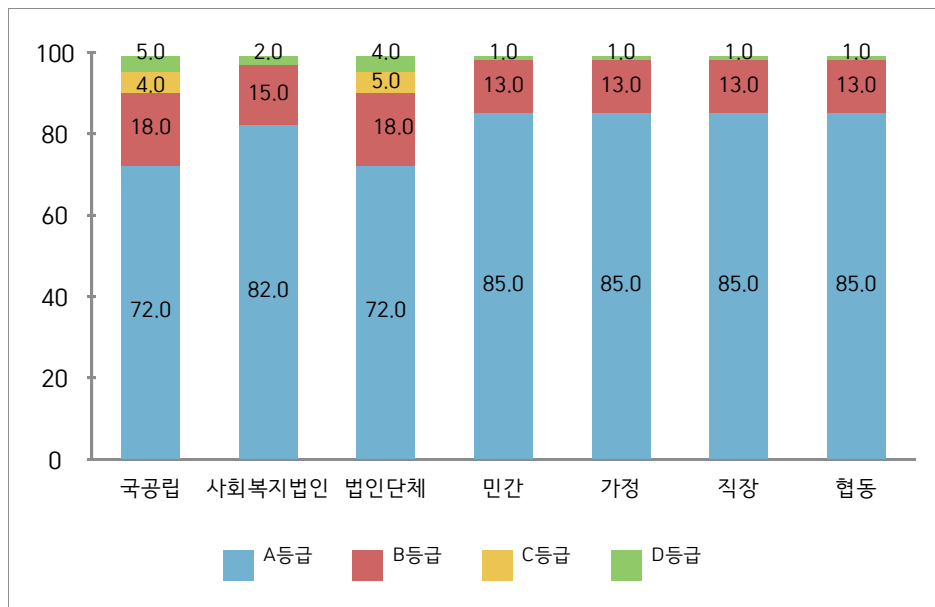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국		79.0	15.0	3.0	1.0
대전	국공립	72.0	18.0	5.0	4.0
	사회복지법인	82.0	15.0	0.0	2.0
	법인·단체 등	72.0	18.0	5.0	4.0
	민간	85.0	13.0	0.0	1.0
	가정	85.0	13.0	0.0	1.0
	직장	85.0	13.0	0.0	1.0
	협동	85.0	13.0	0.0	1.0

출처: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그림 3-7 〕 대전광역시 설립유형별 등급분포

단위: %



□ 어린이집 평가결과확정 현황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평가결과확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236개소 중 A등급 62.3%로 가장 많고, B등급 30.1%, C등급 5.9%, D등급 1.7%로 나타남
- 2020년 10월 전국 어린이집 평가결과확정 현황은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5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B등급 31.0%, C등급 7.7%, D등급 2.4% 순임
- 7대 특광역시별로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68.9%, 서울특별시 63.4%, 울산광역시 62.7%, 대전광역시 62.3%, 인천광역시 58.5% 등으로 나타남

〈 표 3-16 〉 전국 어린이집 평가결과확정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어린이집	인증유지	계 (평가결과확정)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국	35,441	24,158	6,544(100.0)	3,853(58.9)	2,031(31.0)	506(7.7)	154(2.4)
서울	5,387	3,701	897(100.0)	569(63.4)	239(26.6)	65(7.2)	24(2.7)
부산	1,782	1,233	329(100.0)	186(56.5)	119(36.2)	19(5.8)	5(1.5)
대구	1,266	885	264(100.0)	182(68.9)	62(23.5)	18(6.8)	2(0.8)
인천	1,954	1,404	270(100.0)	158(58.5)	84(53.2)	25(29.8)	3(12.0)
광주	1,072	762	156(100.0)	89(57.1)	49(31.4)	17(10.9)	1(0.6)
대전	1,190	755	236(100.0)	147(62.3)	71(30.1)	14(5.9)	4(1.7)
울산	790	550	153(100.0)	96(62.7)	43(28.1)	11(7.2)	3(2.0)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결과확정: 2020년 10월 말일 기준 평가제 시행(19.6.)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 인증 및 평가 어린이집에는 휴/폐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제2절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아동이 안전한 대전」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임. 즉,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아동학대 발견율,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임

〈 표 3-17 〉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2-1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18\text{세 미만 인구}/\text{온종일돌봄 이용 수}) \times 100$ ※온종일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text{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신고접수 종결건수 중 재신고 사례 수(연간)})/\text{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수(연간)}] \times 100$
2-3	아동학대 발견율	$(\text{아동학대 사례 수}/18\text{세 미만 아동 인구 수}) \times 1000$
2-4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text{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초자치단체 수}/\text{기초자치단체 수}) \times 100$

2. 아동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아동 2-1)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온종일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온종일돌봄이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임.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음
- 먼저,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교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가족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온종일돌봄은 위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담당 부서 및 부처가 달라 일부 지표가 체계적으로 생성·관리되고 있지 못함.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발표되는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 대전광역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2018년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3,822명으로 18세 미만 인구 대비 1.53%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대전광역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9,446명으로 18세 미만 인구 대비 3.97%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18 〉 대전광역시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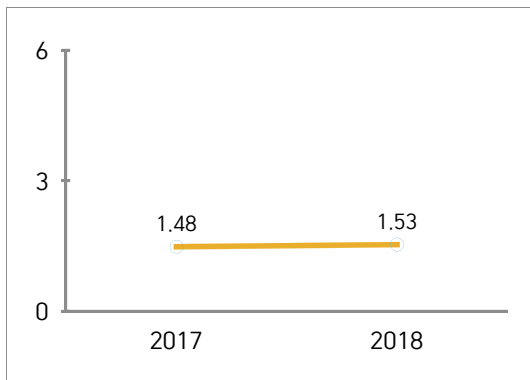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8세 미만 인구*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	이용 비율	이용 아동 수	비율
2017	263,207	3,894	1.48	-	-
2018	249,543	3,822	1.53	8,119	3.25
2019	237,783	-	-	9,446	3.97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교육부(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보도자료; 교육부(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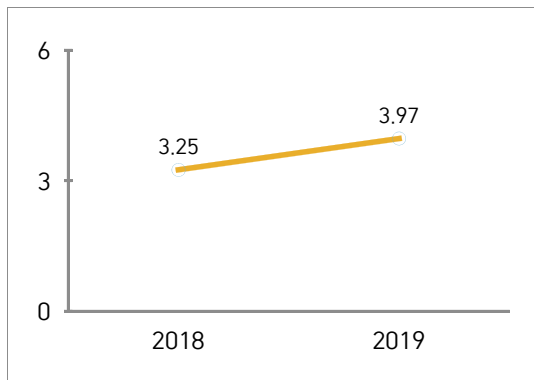
[그림 3-8]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단위: %



[그림 3-9] 대전광역시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단위: %



□ 전국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대전광역시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현황은 2019년 9,446명이 이용하고 있어, 전년 대비 16.3% 증가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 아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현황은 2018년 261,287명, 2019년 290,358명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모든 특·광역시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894명, 2018년 3,822명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임
-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08,578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며, 2018년에는 109,610명의 아동이 이용함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특·광역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감소함

〈 표 3-19 〉 전국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18	2019	2017	2018
전국	261,287	290,358	108,578	109,610
서울	36,833	43,789	12,050	11,774
부산	12,749	13,892	4,747	4,916
대구	9,365	11,906	4,911	5,029
인천	12,290	15,059	4,442	4,397
광주	6,195	6,396	7,970	7,901
대전	8,119	9,446	3,894	3,822
울산	6,153	6,363	1,198	1,300

출처: *교육부(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보도자료; 교육부(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아동 2-2)

□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신고접수 종결건수 중 재신고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재학대 사례비율

- 대전광역시 아동 재학대 사례비율은 2019년 9.7%로 전년 대비 4.4%p 증가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또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20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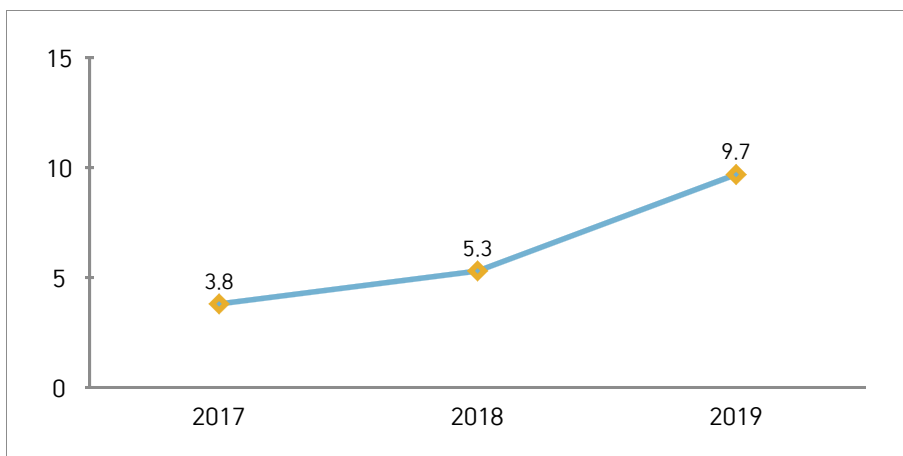
단위: 건, 명, %

구분	2017	2018	2019
아동학대 사례건수*	524	643	895
아동학대 신고접수 종결건수 중 재신고 사례 수**	20	34	87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3.8	5.3	9.7

출처: *국가통계포털,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그림 3-10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단위: %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신고 접수 현황

-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로, 최초로 신고 접수가 된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 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됨
- 대전광역시 재신고 사례 수는 2017년 64건, 2018년 95건, 2019년 2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재신고 접수 사례 현황은 ‘사례 진행 중 재신고’가 118건(52.9%)로 가장 많고, ‘사례 종결 후 재신고’ 87건(39.0%), ‘일반상담 후 재신고’ 18건(8.1%)로 나타남

〈 표 3-21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재신고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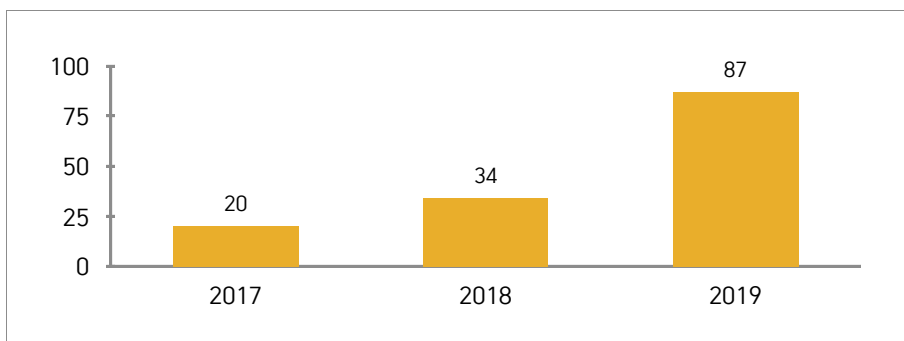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사례 종결 후 재신고	사례 진행 중 재신고	일반 상담 후 재신고	계	사례 종결 후 재신고	사례 진행 중 재신고	일반 상담 후 재신고	계	사례 종결 후 재신고	사례 진행 중 재신고	일반 상담 후 재신고	계
아동학대 재신고 접수 현황	20 (31.3)	35 (54.7)	9 (14.1)	64 (100.0)	34 (35.8)	53 (55.8)	8 (8.4)	95 (100.0)	87 (39.0)	118 (52.9)	18 (8.1)	223 (100.0)

출처: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3-1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사례종결 후 재신고 현황

단위: 건



□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9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²⁾는 총 3,431건이며, 재학대 아동 수는 2,776명임.
2019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는 11.4%임
- 아동학대 중 재학대 비율은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22 〉 전국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명, %

구분	2017	2018	2019
재학대 사례건수	2,160	2,543	3,431
재학대 아동 수	1,859	2,195	2,776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9.7	10.3	11.4

출처: 국가통계포털,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2) 2019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4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임

3)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2-3)

□ 아동학대 발견율은 18세 미만 아동 인구 중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피해아동 발견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사태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함. 2019년 기준 아동학대사태 건수는 2018년 대비 39.0%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태 증가율이 46.0% 증가함
- 대전광역시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3.72%로 전년 대비 1.22%p 증가함.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

〈 표 3-23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발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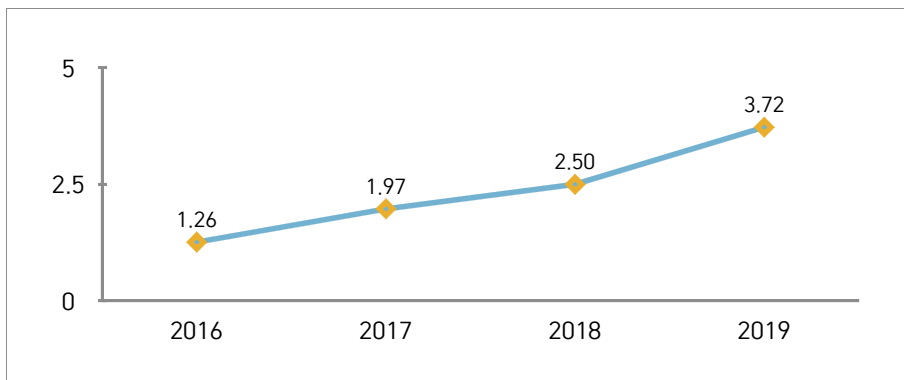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아동학대사태	발견율(인구 천 명 당)
2016	359	1.26
2017	524	1.97
2018	643	2.50
2019	895	3.72

출처: 국가통계포털,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주: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그림 3-1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발견율

단위: %



- 전국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단 한 번의 감소없이 꾸준히 증가함.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고 2017년에는 22,367건으로 약 100.0%p 증가함
-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기준 3.81%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지속해서 피해아동 발견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아동 인구(0~17세)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반면 인구 대비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속해서 증가함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 4.98%, 울산광역시 4.11%, 대구광역시 4.02%, 부산광역시 3.88% 순으로 높음. 반면 서울특별시가 1.74%로 낮게 나타남

〈 표 3-24 〉 전국 아동학대 발견율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아동학대 사례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발견율
전국	18,700	2.15	22,367	2.64	24,604	2.98	30,045	3.81
서울	2,268	1.55	2,306	1.66	2,210	1.64	2,178	1.74
부산	880	1.76	1,459	2.97	1,612	3.39	1,752	3.88
대구	736	1.77	1,127	2.81	1,168	3.02	1,479	4.02
인천	1,190	2.32	1,228	2.49	1,167	2.42	2,282	4.98
광주	346	1.17	796	2.88	962	3.61	876	3.46
대전	359	1.26	524	1.97	643	2.50	895	3.72
울산	685	3.18	739	3.50	734	3.57	800	4.11

출처: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주: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4)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아동 2-4)

-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은 기초자치단체 수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초자치단체 수의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였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2020년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하기로 함.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하는 것임
 -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함
 - 2020년 10월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며, 20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될 예정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은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20.0%로 나타남

〈 표 3-25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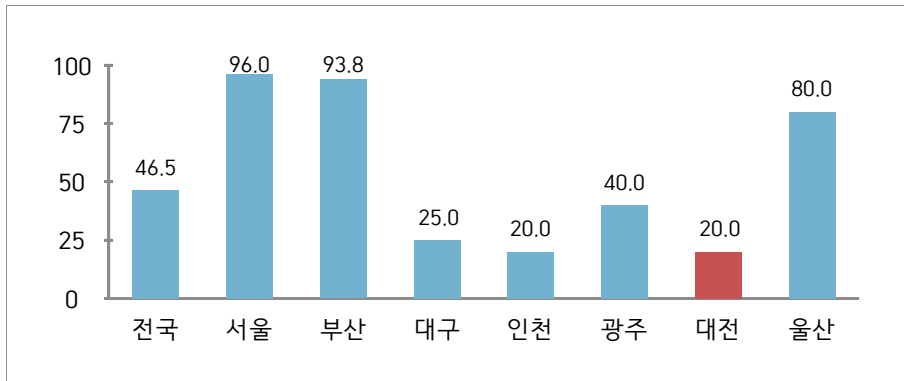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구분	기초자치단체 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수	배치율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5	1	2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10.22.)

[그림 3-13]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

단위: %



□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율은 5개 기초자치단체 중 1명이 배치되어 20.0%의 배치율을 보임
-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율을 살펴보면,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107명이 배치되어 46.5%의 배치율을 보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96.0%로 배치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93.8%, 울산광역시 8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전국 평균 배치율보다 낮게 나타남

< 표 3-26 > 전국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

단위: 명, %

구분	기초자치단체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수	비율
전국	230	107	46.5
서울	25	24	96.0
부산	16	15	93.8
대구	8	2	25.0
인천	10	2	20.0
광주	5	2	40.0
대전	5	1	20.0
울산	5	4	8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10.22.)

제3절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노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임. 즉,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학대 발견율, 노인복지사각지대 발굴률, 응급안전서비스 이용률,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임

〈 표 3-27 〉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3-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frac{\{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 수(실인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 수(재가급여)\}}{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times 100$
3-2	노인학대 발견율	$\frac{(노인학대 사례 수)}{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times 100$
3-3	노인복지사각지대 발굴률	$\frac{(특화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수 + 동협의체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 수)}{65세 이상 노인 수} \times 100$
3-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frac{(독거노인 \cdot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 수)}{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times 100$
3-5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frac{(장기요양평가 A등급 기관 + 장기요양평가 B등급 기관 수)}{장기요양기관 수} \times 100$

2. 노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노인 3-1)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용 노인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2020년 1월 기준 6개 노인돌봄사업 즉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함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서비스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져 있음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전의 현황 자료를 활용한 자료임. 추후 개편 후의 자료로 활용하여 지표를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13.5%인 19만8천명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임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은 2018년에는 12,784명, 2019년에는 14,828명으로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은 2019년 기준 10,181명으로 2018년 기준 14.4%p 증가함. 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8,737명으로 가장 많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146명,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245명 등의 순임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18년 11.5%, 2019년 12.6%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28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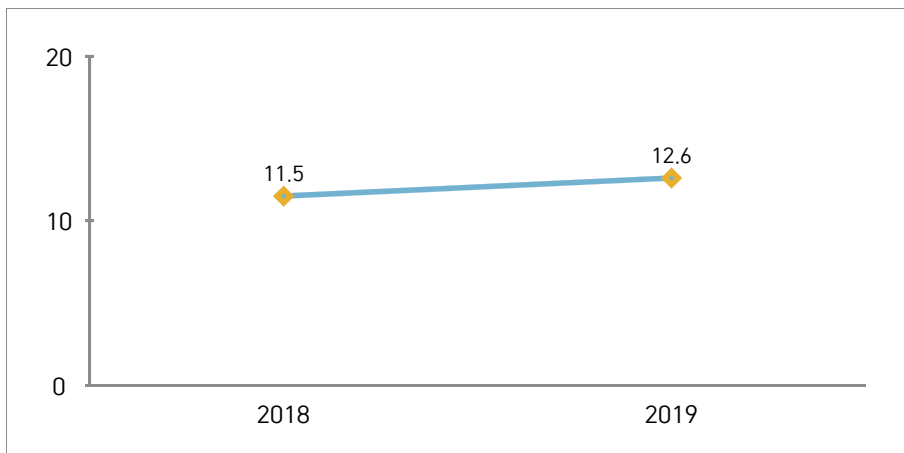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188,530	198,691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이용자 수**		12,784	14,8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전체	8,903	10,18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7,445	1,14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56	8,737
	단기가사서비스	48	53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154	245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11.5	12.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용자 수치임

〔 그림 3-14 〕 대전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단위: %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 대전광역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고 접근성 확보로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9년까지의 4개 사업 즉,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10,814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대덕구가 28.4%(3,074명)로 이용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구 23.7%(2,567명), 동구 23.6%(2,551명), 서구 19.6%(2,123명), 유성구 4.6%(499명) 순으로 나타남

〈 표 3-29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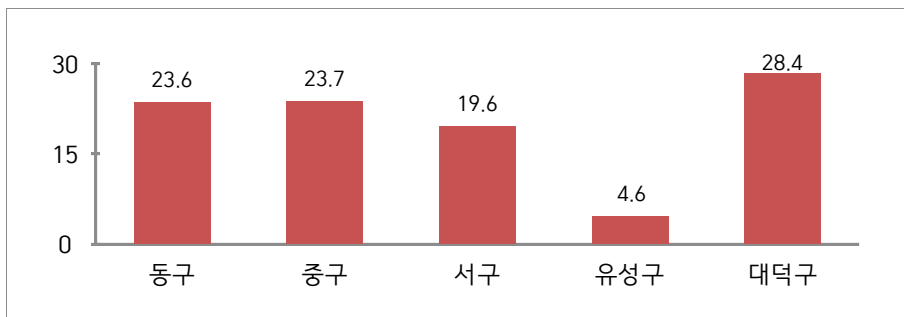
구분		이용자 수	비율
대전		10,814	100.0
기초자치단체	동구	2,551	23.6
	중구	2,567	23.7
	서구	2,123	19.6
	유성구	499	4.6
	대덕구	3,074	28.4

출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자료(2020.9.)

※ 서비스 신청, 종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를 수 있음

〔 그림 3-15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단위: %



2) 노인학대 발견율(노인 3-2)

□ 노인학대 발견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인학대 사례 비율로 산출되는 지표임

□ 노인학대 발견율

○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은 2016년 0.64%, 2017년 0.66%, 2018년 0.67%로 나타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30 〉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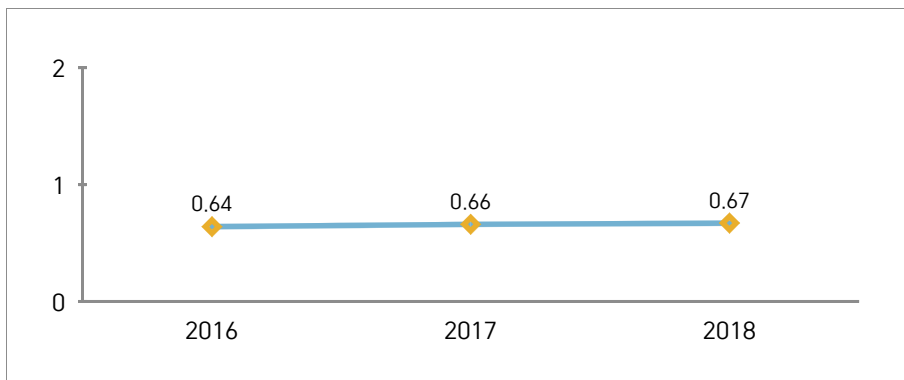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	0.64	0.66	0.67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3-16]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발견율

단위: %



○ 다만, 노인학대 발견율이 높다고 노인 돌봄 수준이 높아졌다거나 학대 사각지대가 줄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향후에는 재학대발생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노인학대 발견율

- 전국 노인학대 발견율을 살펴보면 2016년 0.62%, 2017년 0.62%, 2018년 0.68%로 나타나 20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가 1.20%로 노인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1.08%, 울산광역시 0.82%, 대전광역시 0.67%, 부산광역시 0.64%, 대구광역시 0.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노인학대 발견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표 3-31 〉 전국 노인학대 발견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전국	0.62	0.62	0.68
서울	0.38	0.32	0.37
부산	0.63	0.66	0.64
대구	0.54	0.60	0.58
인천	1.10	1.29	1.20
광주	1.33	1.33	1.08
대전	0.64	0.66	0.67
울산	0.97	0.89	0.82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3)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률(노인 3-3)

□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특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2020년 1월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 서비스 중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을 제공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활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임
-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 중 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관리하고 있음. 이 중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 현황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현황

-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2014~20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 은둔형, 우울형 노인 대상 특화서비스로 바뀜
-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를 독거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화 서비스로 진행함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0월 기준 총 235명으로 은둔형 17명, 우울형 218명임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구의 이용자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구 45명, 대덕구 41명, 유성구 39명, 동구 20명 순으로 나타남.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울형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표 3-32 〉 대전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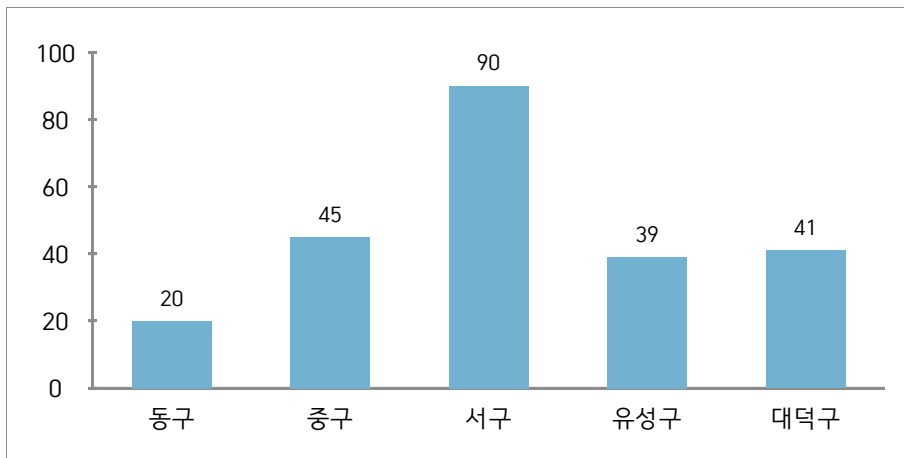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은둔형		우울형		총인원	
		이용자 수	비율	이용자 수	비율	이용자 수	비율
대전		17	7.2	218	92.8	235	100.0
기초자치단체	동구	4	20.0	16	80.0	20	100.0
	중구	-	0.0	45	100.0	45	100.0
	서구	8	8.9	82	91.1	90	100.0
	유성구	1	2.6	38	97.4	39	100.0
	대덕구	4	9.8	37	90.2	41	100.0

출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자료(2020.10.5.)

〔 그림 3-17 〕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명



□ 대전광역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건수

- 대전광역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1,836건, 2019년 11,608건, 2020년 상반기 7,896건으로 나타남. 2020년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짐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2019년 서구가 3,75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구 2,735건, 유성구 1,809건, 대덕구 1,765건, 동구 1,549건으로 나타남

〈 표 3-33 〉 대전광역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건수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상반기)
대전		11,836	11,608	7,896
기초자치단체	동구	3,023	1,549	1,190
	중구	1,506	2,735	417
	서구	4,365	3,750	5,414
	유성구	1,445	1,809	224
	대덕구	1,497	1,765	651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노인 3-4)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9년 37,723명으로 전년 대비 7.9%p 증가함. 독거노인의 가구가 대전광역시 전체 일반가구의 6.2%를 차지함
-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독거노인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3,316명이 이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11.3%p 감소함
-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독거노인 이용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에 감소폭이 큼. 이는 이용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재개발되는 구역이 많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혹은 대전 내 이사 시 장비 미설치로 인한 서비스 종결이 많아 이용자 수가 감소함
-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12.0%, 2018년 11.0%, 2019년 9.0%로 나타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표 3-34 〉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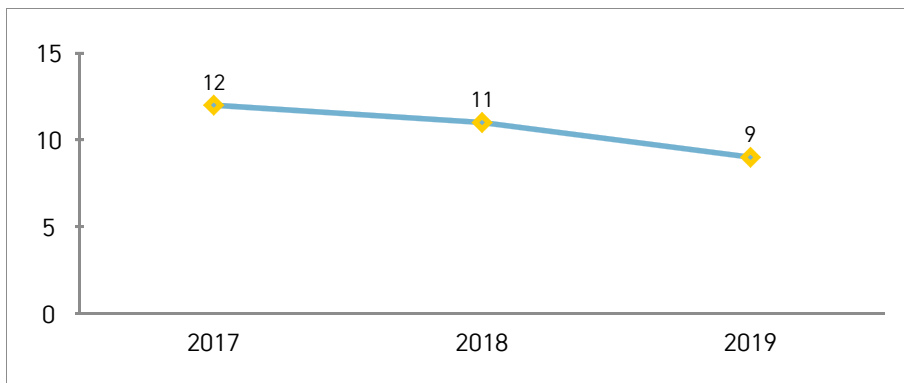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32,917	34,946	37,72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이용자 수**	3,893	3,737	3,31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12.0	11.0	9.0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자료

[그림 3-18] 대전광역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

단위: %



5)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노인 3-5)

-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장기요양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과 B등급을 받은 기관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모든 장기요양기관(재가,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음

□ 대전광역시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67개소, 2018년 711개소, 2019년 827개소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827개소 중 85.0%(699개소)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임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2017년 49개소, 2018년 50개소, 2019년 111개소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2019년 13.4%로 전년 대비 6.4%p 증가함

〈 표 3-35 〉 대전광역시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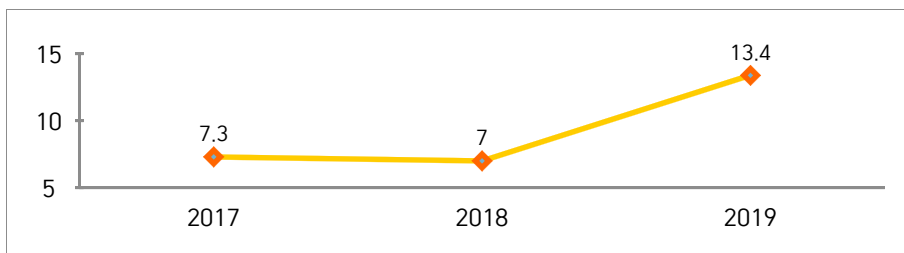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2017	2018	2019
장기요양 기관 수*	667	711	827
B등급 이상 기관 수**	49	50	111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7.3	7.0	13.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발간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그림 3-19 〕 대전광역시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단위: %



제4절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장애인의 차별없는 평등한 삶과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임. 즉,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여성장애인 돌봄 신청률임

〈 표 3-36 〉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4-1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4-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text{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text{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times 100$
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	$(\text{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 \text{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 \times 100$
4-4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text{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 \text{관내 등록 장애인(8세~64세) 수}) \times 100$
4-5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률	$[(\text{출산비 지원사업 이용 여성장애인 수} / \text{출산 여성장애인 수}) + (\text{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수} / \text{여성장애인 수})] \times 100$

2. 장애인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장애인 4-1)

-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로 산출하는 지표임
 -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위기상황 등에 대처가 어려운 최종증독거장애인 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
 -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1인당 연간 50,000천원을 추가 지원함
- 대전광역시 최종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대전광역시 최종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으 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10명이 이용함
 - 최종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연차별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13명, 2021년 17명, 2022년 20명을 지원할 계획임
 - 1인당 연간 추가 지원액이 5천만원으로 2019년에는 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20년 7억38백만원, 2021년 11억56백만원, 2022년 15억96백만을 지원할 예정임

〈 표 3-37 〉 대전광역시 최종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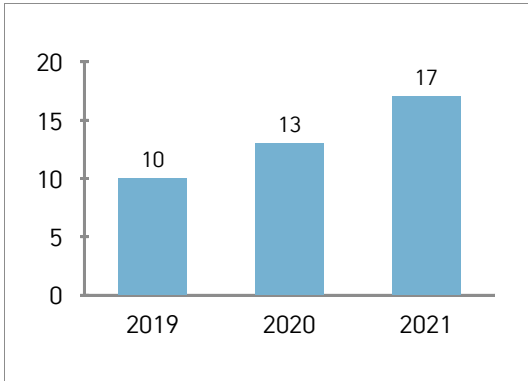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이용자 수	10	13	17
예산	500	738	1,156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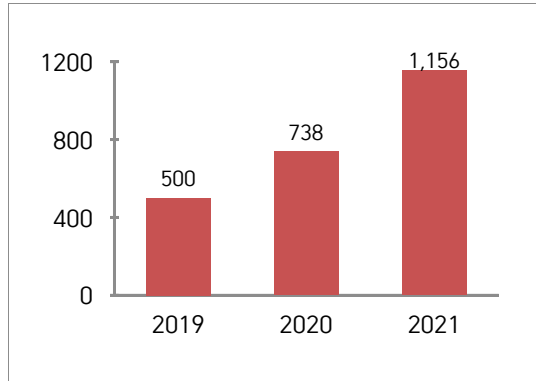
[그림 3-20] 최종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명



[그림 3-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

단위: 백만원



□ 대전광역시 장애인구 현황

- 대전광역시 장애인구는 2019년 기준 총 73,222명이며, 이는 대전 총인구 대비 약 5.0%를 차지함. 2018년 대비 0.4p(295명) 증가함
- 연도별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2017년 72,180명, 2018년 72,927명, 2019년 73,222명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장애인구 중 심한 장애가 39.0%(28,549명)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는 61.0%(44,673명)로 나타남

< 표 3-38 > 대전광역시 장애인구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7	28,371 (39.3)	43,809 (60.7)	72,180 (100.0)
2018	28,566 (39.2)	44,361 (60.8)	72,927 (100.0)
2019	28,549 (39.0)	44,673 (61.0)	73,222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 2017년, 2018년은 장애등급제 개편 전으로 1~3등급을 심한 장애로, 4~5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함

□ 전국 장애인구 장애정도별 현황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2,618,918명으로 전체 인구 51,849,861명 대비 5.1%를 차지함. 2018년 대비 1.3%p 증가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심한 장애가 37.6%(985,403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62.4%(1,633,515명)로 나타남.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장애인구가 적으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가 394,843명으로 장애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75,378명, 인천광역시 144,574명, 대구광역시 125,485명, 대전광역시 73,2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모든 특·광역시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비율이 더 높음

〈 표 3-39 〉 전국 장애인구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전국	978,526	1,567,111	2,545,637	983,769	1,602,107	2,585,876	985,403	1,633,515	2,618,918
서울	151,415	240,338	391,753	150,739	242,181	392,920	149,906	244,937	394,843
부산	67,419	103,965	171,384	67,645	106,175	173,820	67,396	107,982	175,378
대구	46,516	73,250	119,766	46,894	76,176	123,070	46,994	78,491	125,485
인천	52,149	86,155	138,304	52,684	89,087	141,771	52,985	91,589	144,574
광주	27,394	41,839	69,233	27,621	42,263	69,884	27,704	42,473	70,177
대전	28,371	43,809	72,180	28,566	44,361	72,927	28,549	44,673	73,222
울산	18,746	31,459	50,205	18,807	31,833	50,640	18,907	32,107	51,014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현황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장애인 4-2)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시간)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함임
 - 지원대상은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활동지원구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시는 국비로 지원되는 활동지원 부족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과 최중증독거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표 생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향후 이에 대한 지표를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 현황은 2019년 기준 3,711명으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함. 대전광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은 2019년 653억8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년 대비 47.3%p 증가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은 지속해서 증가함

〈 표 3-40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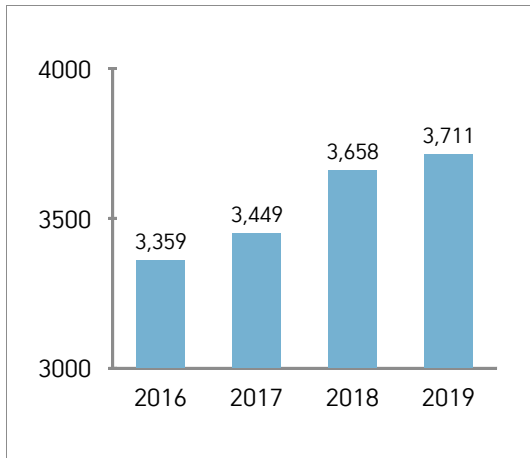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3,359	3,449	3,658	3,711
예산	33,269	34,822	44,394	65,383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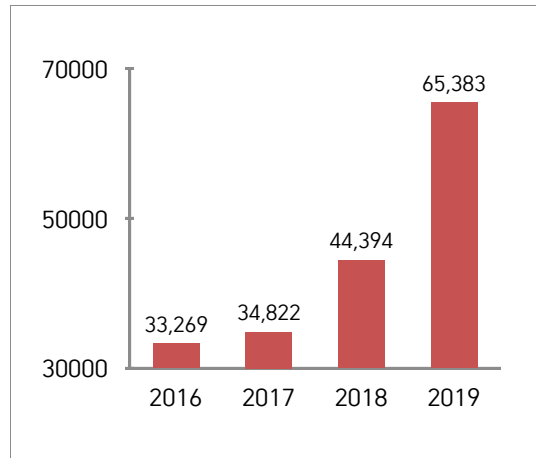
[그림 3-2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그림 3-2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액

단위: 백만원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장애인 4-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률로 산출하는 지표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대전광역시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지표 생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향후 이에 대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수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11월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가 운영 중임

< 표 3-41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	1	1	1	1	1

출처: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현황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현황은 2019년 총 66명이 이용하였으며, 7억5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됨

< 표 3-42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
이용자 수	66
예산	757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인구 현황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인구는 2019년 기준 7,559명으로 2018년 대비 3.7%p 증가함.
발달장애인 7,559명 중 지적장애인이 6,531명, 자폐성장애인이 1,028명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인구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43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지적	자폐성
2017	7,006	6,073	933
2018	7,289	6,305	984
2019	7,559	6,531	1,028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장애인 4-4)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등록 장애인(18세에서 64세 미만)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 대다수 장애인 일자리 참여대상자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임. 대전광역시 장애인 중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연령인 18세에서 64세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37,981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51.9%를 차지함
 - 18세에서 64세 장애인구는 2017년 39,274명, 2018년 38,832명, 2019년 37,981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고령 장애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함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총 9개로 이 중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 행복어울림농장,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건강카페는 대전광역시 자체사업임. 총 9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19년 기준 908명이며, 전년 대비 8.5%p 증가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2019년 2.4%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44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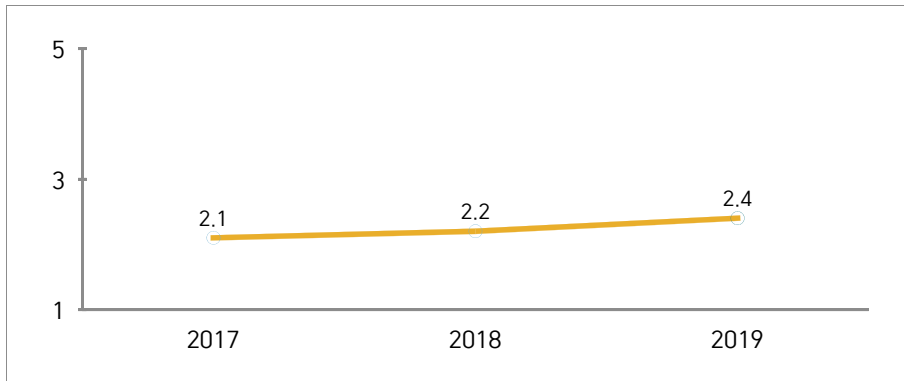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18세~64세 장애인구	39,274	38,832	37,981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829	837	908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2.1	2.2	2.4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그림 3-24]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단위: %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 총 9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17년 829명, 2018년 837명, 2019년 908명으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 일자리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178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7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0명,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59명,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총 예산은 2019년 기준 118억1천만원이며, 전년 대비 37.8% 증가함. 장애인 일자리사업별로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은 장애인일반형(전일제)으로 2019년 기준 47억18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34.5% 증가함.
-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의 경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보다 참여자 수는 적으나 사업예산은 더 많음. 이는 월 인건비 단가가 더 높고 전일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나타남 결과임

〈 표 3-45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829	7,429	837	8,573	908	11,810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155	2,977	157	3,508	178	4,718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50	480	50	559	59	714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396	1,685	396	2,091	439	2,709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70	1,065	70	1,093	70	1,3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28	344	28	400	60	1,344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60	218	60	225	30	257
행복어울림농장	20	186	25	168	25	174
발달장애인직무지도요원	22	474	22	529	22	562
건강카페 운영	28	비예산	29	비예산	25	비예산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5)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률(장애인 4-5)

- 여성장애인 돌봄 신청률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비용 지원사업 이용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여성장애인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정부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 출산비용은 출산아동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지표는 산출이 되나 신청자 수 등 일부 지표는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향후 이에 대한 자료를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생성되는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여성장애인 인구규모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인구규모는 2019년 기준 30,590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41.8%를 차지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0,002명, 2018년 30,436명, 2019년 30,590명으로 나타나,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46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인구규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장애인구	여성 장애인구
2017	72,180	30,002
2018	72,927	30,436
2019	73,222	30,590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현황은 2019년 기준 62명이 출산비용을 지원 받았으며, 전년 대비 21.6%p 증가함
- 출산비용 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6억2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전년 대비 21.6%p 증가함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현황은 2019년 50명의 여성장애인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5.7%p 감소함.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표 3-47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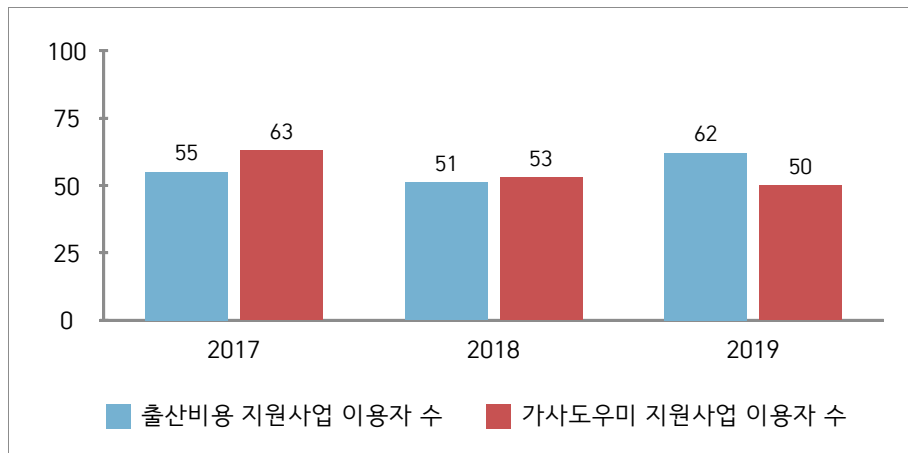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출산비용 지원사업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수	예산액	이용자 수	예산액
2017	55	550	63	179
2018	51	510	53	188
2019	62	620	50	194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그림 3-25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제5절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 만들기」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임. 즉,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소요) 예산,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공공)임

〈 표 3-48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5-1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5-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	(센터 설치 기초자치단체 수/기초자치단체 수) × 100
5-3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
5-4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공공)	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중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

2.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남성 육아휴직률(공공)(가족돌봄자 5-1)

-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은 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전체 육아휴직자 중 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함. 근로자의 권리가므로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현황
 -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0년 7월 52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7.7%를 차지함
 -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1.2%, 2019년 14.3%, 2020년 7월 17.7%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49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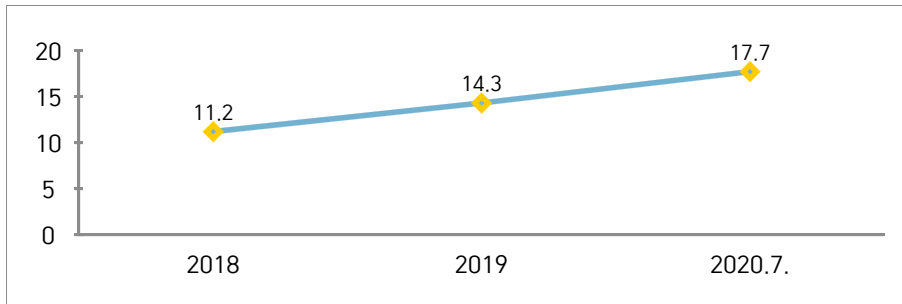
구분	전체 휴직자	남성 휴직자	남성 육아휴직률
2018	2,392	269	11.2
2019	2,662	380	14.3
2020. 7.	2,947	522	17.7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순수급자현황

※ 육아휴직 순수급자수(월)

[그림 3-26]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단위: %



□ 전국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현황

- 전국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0년 7월 8,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0%를 차지함.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7.5%, 2019년 8.7%, 2020년 7월 10.0%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20년 7월 울산광역시가 26.4%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18.7%, 대전광역시 17.7%, 서울특별시 17.1%, 광주광역시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50 〉 전국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률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7.		
	전체 휴직자	남성 휴직자	휴직률	전체 휴직자	남성 휴직자	휴직률	전체 휴직자	남성 휴직자	휴직률
전국	66,575	5,020	7.5	75,910	6,621	8.7	86,453	8,662	10.0
서울	28,588	3,706	13.0	31,256	4,670	14.9	34,936	5,989	17.1
부산	3,119	315	10.1	3,484	450	12.9	4,005	570	14.2
대구	1,939	170	8.8	2,148	222	10.3	2,499	322	12.9
인천	2,117	220	10.4	2,620	400	15.3	3,080	576	18.7
광주	1,278	124	9.7	1,563	196	12.5	1,715	255	14.9
대전	2,392	269	11.2	2,662	380	14.3	2,947	522	17.7
울산	1,146	216	18.8	1,388	303	21.8	1,620	428	26.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순수급자현황

※ 육아휴직 순수급자수(월)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가족돌봄자 5-2)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수는 기초자치단체 대비 설치율로 산출하는 지표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서비스를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확대함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율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됨. 이후 2008년 대덕구, 2010년 동구, 2011년 중구, 2013년 서구에 설치되어 5개 기초자치단체에 각 1개소가 운영 중임
- 2015년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2016년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
-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각 1개소가 운영되어 총 3개소가 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는 유성구와 서구에 각 1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는 2015년에 1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율은 2016년부터 40.0%를 유지하고 있음

〈 표 3-51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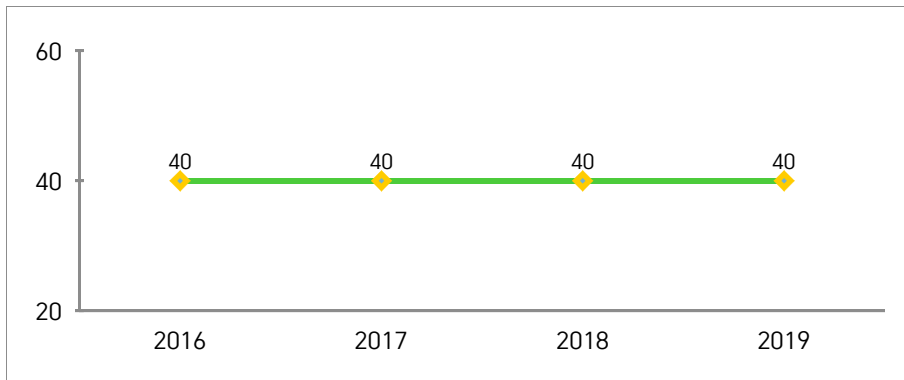
단위: 개, 개소, %

구분	기초자치 단체 수	2017		2018		2019	
		설치 수	비율	설치 수	비율	설치 수	비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3	60.0	3	60.0	3	6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5	2	40.0	2	40.0	2	40.0

출처: 여성가족부,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그림 3-27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율

단위: %



3)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가족돌봄자 5-3)

-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은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소용되는 연간 예산으로 산출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에는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액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액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건강가정사업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 등의 예산임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액은 2020년 293억659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 증가함.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액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52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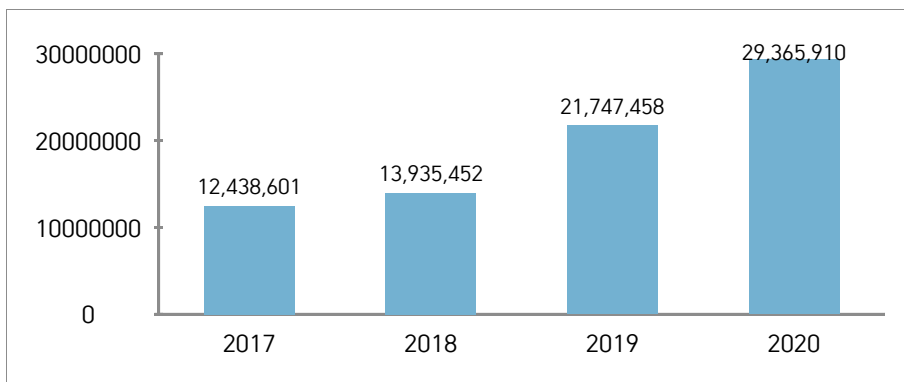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예산	12,438,601	13,935,452	21,747,458	29,365,910

출처: 대전광역시 재정현황

〔 그림 3-28 〕 대전광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

단위: 천원



4) 가족친화인증(공공) 기업체 수(가족돌봄자 5-4)

-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는 시·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로 산출되는 지표임
 -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됨.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업과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함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 가족친화 인증은 최초 신청 시 3년간 유효하고, 2년 연장 후, 다시 3년 단위로 재 인증을 하여 3→2→3반복 년으로 진행되는 구조임
 - 2019년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총 36개로, 전년 대비 15.1%p 감소함. 신규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36개 중 공공기관은 한 개 기관도 없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규인증을 받는 기관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신규인증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없음

〈 표 3-53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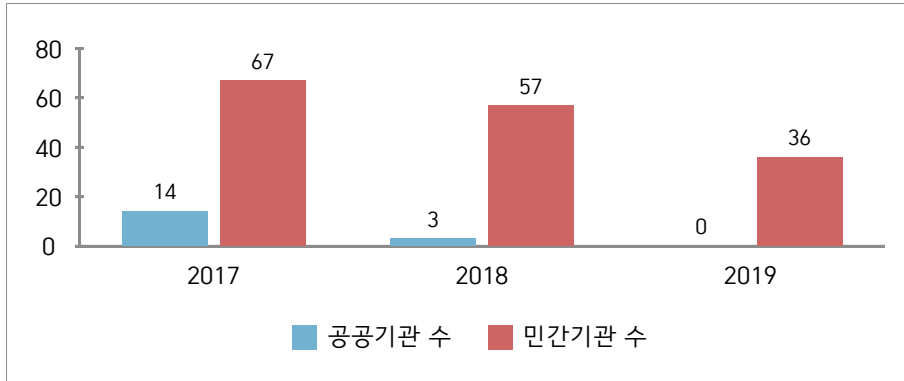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계
2017	14(17.3)	65(80.2)	2(2.5)	81(100.0)
2018	3(5.0)	57(95.0)	0(0.0)	60(100.0)
2019	0(0.0)	36(100.0)	0(0.0)	36(100.0)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 연도별로 신규인증을 받은 기관 수

[그림 3-29]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단위: 개



□ 전국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 2019년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 및 기관 수는 705개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p 증가함
- 기업 및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4%(588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9.1%(64개), 공공기관 7.5%(53개)로 나타남.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로 최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인증을 적게 받음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186개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39개, 대전광역시 36개, 인천광역시 27개, 광주광역시 22개, 대구광역시 19개 등으로 나타남
- 7대 특·광역시 모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인증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인증비율이 가장 낮음
-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총 4,340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2,839개, 공공기관 1,045개, 대기업 456개임
- 총 4,340개의 기업 및 기관 인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년간 1,186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아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738개, 대전광역시 301개, 부산광역시 255개, 충청북도 267개, 충청남도 23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54 〉 전국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공공 기관	중소 기업	대기 업	총계	공공 기관	중소 기업	대기 업	총계	공공 기관	중소 기업	대기 업	총계
전국	304	414	49	767	70	565	39	674	53	588	64	705
서울	80	94	25	199	17	124	27	168	7	145	34	186
부산	8	16	6	30	1	36	0	37	5	33	1	39
대구	13	9	0	22	4	14	0	18	1	17	1	19
인천	12	15	4	31	0	15	2	17	4	21	2	27
광주	7	7	0	14	3	12	0	15	2	20	0	22
대전	14	65	2	81	3	57	0	60	0	36	0	36
울산	13	4	0	17	0	7	0	7	0	9	0	9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 연도별로 신규인증을 받은 기관 수

제6절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대전 복지 구축」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임. 즉,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긴급복지지원 건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 등임

〈 표 3-55 〉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6-1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대전형 생활임금액, 적용 대상자 수(범위)
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text{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text{대전광역시 인구}) \times 100$
6-3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text{생계급여 탈수급자 수} + \text{취창업자 수}) / \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 \times 100] \times \text{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비율 가중치}$
6-4	긴급복지지원 건수	긴급복지지원 건수(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6-5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횟수(세대 수)

2. 소득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소득 6-1)

□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 수를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형 생활임금의 현황

- 대전광역시 2015년 10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일부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조례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대전광역시는 2015년부터 매해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 사전 고지를 하고 있으며, 처음 고지된 2016년도 생활임금액은 시급 7,055원임
- 생활임금은 2017년도 7,630원, 2018년도 9,036원, 2019년도 9,600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처음으로 1만원이 넘어 10,050원으로 책정되었음. 올해 고시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10,202원으로 결정되었음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수는 2018년도에 1,200명에서 2019년도에는 1,12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56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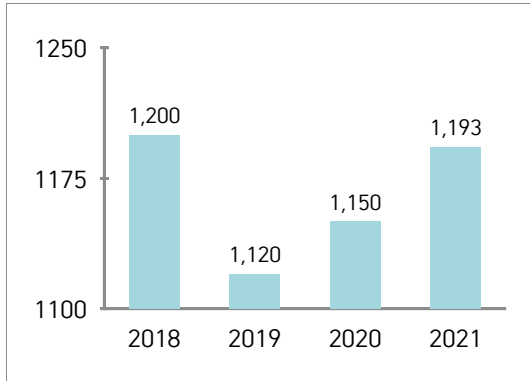
단위: 원/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시간급	9,036	9,600	10,050	10,202
	대상자 수	1,200	1,120	1,150	1,193
	최저임금 대비 수준(%)	120	115	117	117
최저임금(시간급)		7,530	8,350	8,590	8,720

출처: 대전광역시청 생활임금 관련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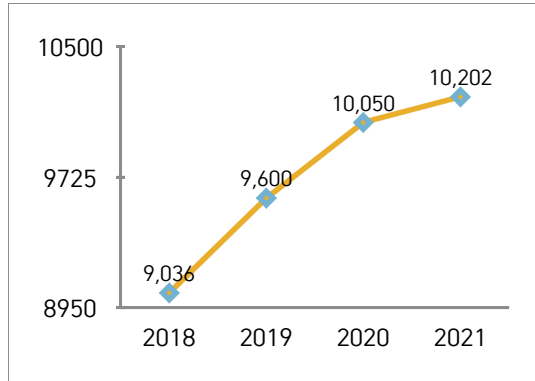
[그림 3-30]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대상자 수

단위: 명



[그림 3-3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시간급 수준

단위: 원



□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현황

- 2020년도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시급 10,050원으로 가장 높고, 중구 10,030원, 서구 9,570원, 유성구 9,160원, 동구 9,140원, 대덕구 9,130원의 순임

〈 표 3-57 〉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2020년도 생활임금 현황

단위: 원, 천원, %

구분		2020년 생활임금액		2020년최저임금 (8,590원)
		시급(원)	월급(천원)	
대전		10,050	2,100	117%
기초자치단체	동구	9,140	1,910	106%
	중구	10,030	2,096	116%
	서구	9,570	2,000	111%
	유성구	9,160	1,914	106%
	대덕구	9,130	1,908	106%

출처: 대전광역시청 생활임금 관련 보도자료

□ 전국 생활임금 현황

- 2020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평균 10,115원이며, 대전광역시
는 전국 평균보다 65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은 미시행 중이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
울특별시 10,523원임. 그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10,353원, 부산광역시 10,186원, 대
전광역시 10,050원, 인천광역시 10,000원의 순임

〈 표 3-58 〉 전국 생활임금 현황

단위: 원, 천원, %

구분	2020년 생활임금액		2020년 최저임금(8,590원) 대비 수준
	시급	월급(천원)	
전국	10,115	2,114	118%
서울	10,523	2,199	122%
부산	10,186	2,128	118%
대구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인천	10,000	2,090	116%
광주	10,353	2,163	120%
대전	10,050	2,100	117%
울산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출처: 대전광역시청 생활임금 관련 보도자료

□ 지표는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로 되어 있으나, 대전형 생활임금 제도의 전체적인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지표 측정 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함

-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는 적용 대상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즉, 적용 대상 시설에서 비정규직 종사자가 수가 줄어들면 생활임
금 대상자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물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생활임금 대상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적용 대상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단순히 생활임금 대상자 수의 증감 여부로 판단하는 것
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생활임금 수준의 변화와 대상자 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소득 6-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대전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6년 3.60%, 2017년 3.49%, 2018년 3.78%, 2019년 4.02%로 나타나, 2017년도만 전년 대비 감소한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동구가 6.3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대덕구 5.38%, 중구 4.08%, 서구 3.31%, 유성구 2.02%의 순임. 전년 대비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증가하였고, 중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59 〉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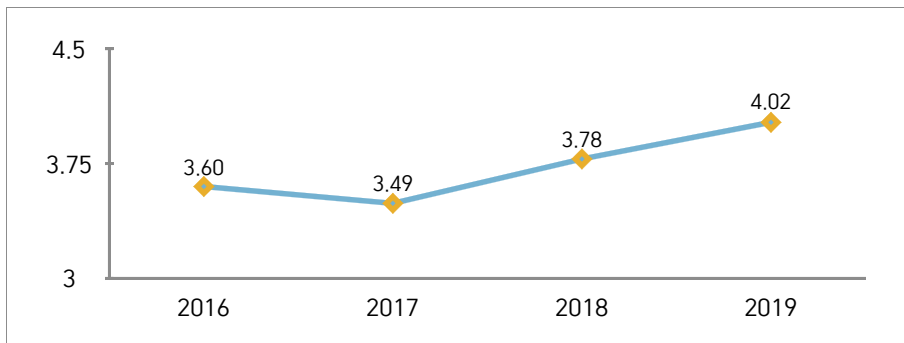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전		3.60	3.49	3.78	4.02
기초자치단체	동구	5.98	5.77	6.13	6.39
	중구	4.52	4.39	4.74	4.08
	서구	2.88	2.84	3.12	3.31
	유성구	1.71	1.67	1.81	2.02
	대덕구	4.67	4.54	5.07	5.38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 그림 3-32 〕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단위: %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7년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도 기준 3.63%임
- 7대 특·광역시를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가 5.2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5.05%, 대구광역시 4.82%, 인천광역시 4.13%, 대전광역시 4.02%, 서울특별시 3.26%, 울산광역시 2.32%의 순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모든 특광역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60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국	3.15	3.05	3.36	3.63
서울	2.69	2.67	2.96	3.26
부산	4.27	4.18	4.62	5.05
대구	4.34	4.17	4.49	4.82
인천	3.41	3.35	3.73	4.13
광주	4.72	4.49	4.99	5.23
대전	3.6	3.49	3.78	4.02
울산	1.60	1.62	1.98	2.32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3)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소득 6-3)

□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은 자활근로참여자의 근로 및 취·창업으로 자활참여자의 자활근로성공률을 측정하는 지표임.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이며, 그 지표 결과에 따라 생성·관리함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추이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은 2015년 27.2%, 2016년 56.9%, 2017년 72.8%, 2018년 52.6%로 201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61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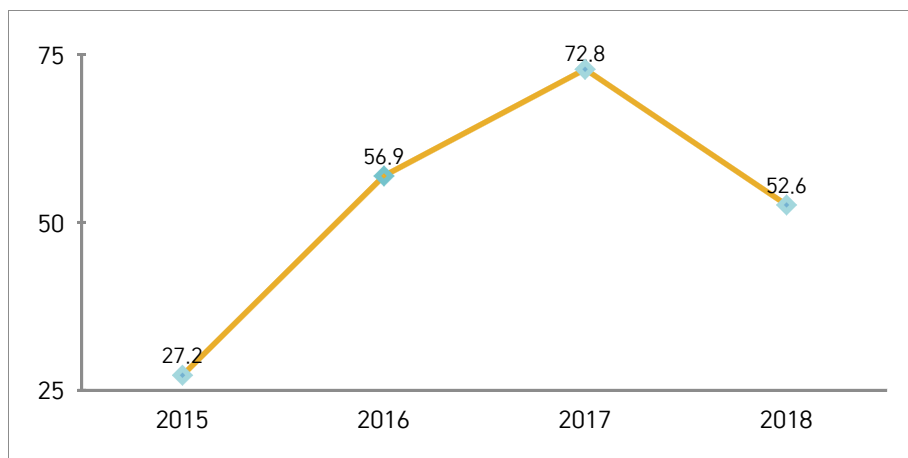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27.2	56.9	72.8	52.6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정부합동평가

【 그림 3-33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단위: %



□ 전국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추이

- 전국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을 살펴보면, 2015년 34.2%, 2016년 49.0%, 2017년 49.5%, 2018년 39.5%로 나타나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임. 다만, 대전광역시 2015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를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 67.3%이며,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52.6%, 대구광역시 45.4%, 광주광역시 43.3%, 인천광역시 39.0%, 부산광역시 33.5%, 서울특별시 27.9%의 순임

〈 표 3-62 〉 전국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목표치
전국	34.2	49.0	49.5	39.5	41.2
서울	17.8	28.6	32.2	27.9	30.0
부산	32.7	59.1	53.8	33.5	39.7
대구	28.9	54.5	49.4	45.4	38.6
인천	31.6	58.6	51.4	39.0	39.6
광주	44.5	41.9	43.6	43.3	40.3
대전	27.2	56.9	72.8	52.6	42.0
울산	58.3	77.3	60.4	67.3	55.1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정부합동평가 2019년 실적 결과 확정 후 제시(2020.6.)

□ 대전광역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액은 증가 추세이며, 참여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임

- 예산액은 2018년 120억원, 2019년 177억원, 2020년 10월 현재 208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참여인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표 3-63 〉 대전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2018	2019	2020. 10.
예산	12,042,156	17,724,462	20,819,196
참여인원	1,685	2,238	2,185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4) 긴급복지지원 건수(소득 6-4)

□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 긴급복지지원 현황

-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2017년 7,643건, 2018년 8,931건, 2019년 10,77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긴급복지지원 건수의 증가에 따라 소요 예산도 증가 추세를 보임

〈 표 3-64 〉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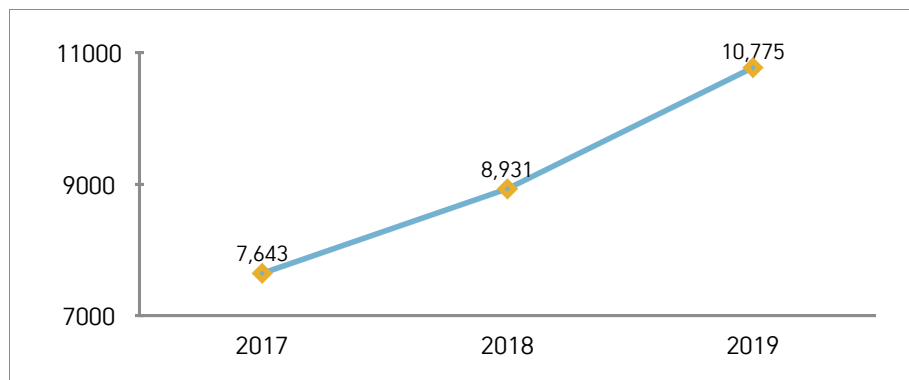
단위: 건, 천원

구분	지원 건수	소요예산
2017	7,643	4,646,045
2018	8,931	5,398,475
2019	10,775	6,595,788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그림 3-34 〕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건수

단위: 건



5)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소득 6-5)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저소득주민(65세 이상 세대주세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는 2018년 5,813세대, 2019년 7,013세대, 2020년 10월 현재 7,933세대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소요예산도 지원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표 3-65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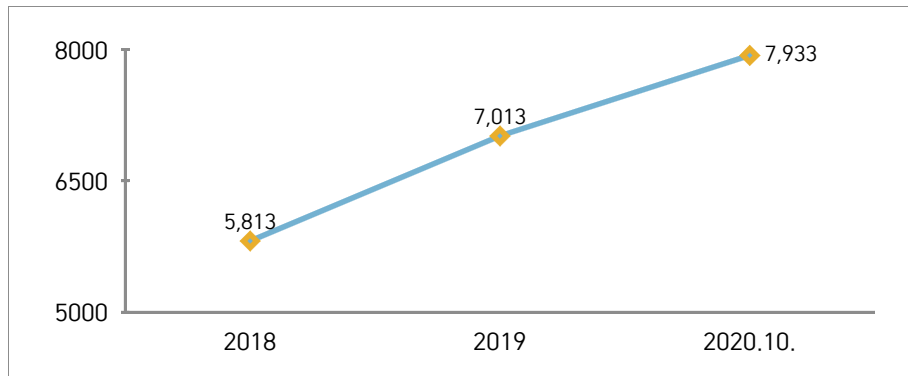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사업실적(월평균)	소요예산
2018	5,813	480,000
2019	7,013	741,300
2020. 10.	7,933	972,000

출처: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그림 3-35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

단위: 세대(월평균)



제7절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임. 즉,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등임

〈 표 3-66 〉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7-1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text{공공부문 임대주택 수} / \text{총 주택 수}) \times 100$
7-2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text{현금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수} + \text{현물 주거급여 지원 가구 수}) /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7-3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text{민간부문 임대주택 수} / \text{총 주택 수}) \times 100$
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text{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의 수} /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2. 주거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주거 7-1)

-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7.94%, 2017년 8.36%, 2018년 8.72%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주택 총 수는 2017년은 전년 대비 3,900호(0.65%), 2018년은 전년 대비 6,100호(1.01%)가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 임대주택 수는 2017년은 전년 대비 2,898호(6.08%), 2018년은 전년 대비 2,687호(5.31%)가 증가하였음
 - 즉, 주택 총 수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67 〉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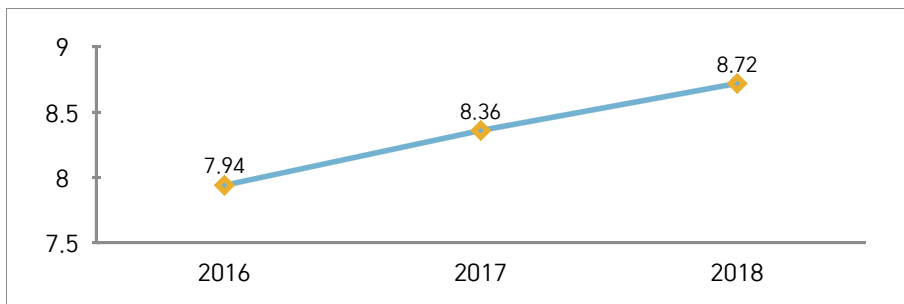
단위: 주택 수, %

구분	2016	2017	2018
주택 총 수(A)	601,000	604,900	611,000
공공임대주택 수(B)	47,696	50,594	53,281
공공임대주택 비율(B/A)	7.94	8.36	8.72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그림 3-36]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단위: %



□ 전국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6.83%, 2017년 7.17%, 2018년 7.54%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대전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임
- 7대 특·광역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 2018년도를 기준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10.49%임.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8.72%, 서울특별시 7.72%, 대구광역시 7.53%임.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 3.77%임

〈 표 3-68 〉 전국 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 주택수, %

구분	2016			2017			2018		
	총주택수	공공임대주택수	비율	총주택수	공공임대주택수	비율	총주택수	공공임대주택수	비율
전국	19,877,000	1,357,701	6.83	20,313,400	1,456,838	7.17	20,818,000	1,570,242	7.54
서울	3,644,000	251,912	6.91	3,671,500	283,952	7.73	3,682,400	284,257	7.72
부산	1,376,000	68,936	5.01	1,396,000	73,287	5.25	1,412,900	79,335	5.62
대구	966,000	62,972	6.52	988,400	69,628	7.04	996,100	74,991	7.53
인천	1,073,000	62,933	5.87	1,084,200	68,721	6.34	1,107,800	77,372	6.98
광주	595,000	60,935	10.24	606,200	62,940	10.38	616,500	64,675	10.49
대전	601,000	47,686	7.94	604,900	50,594	8.36	611,000	53,281	8.72
울산	457,000	16,951	3.71	468,400	16,952	3.62	476,000	17,924	3.77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2)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주거 7-2)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총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은 2017년 4.99%, 2018년 5.54%, 2019년 5.97%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하여 2018년 11.9%(3,545가구), 2019년 9.0%(2,988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69 〉 대전광역시 기초주거급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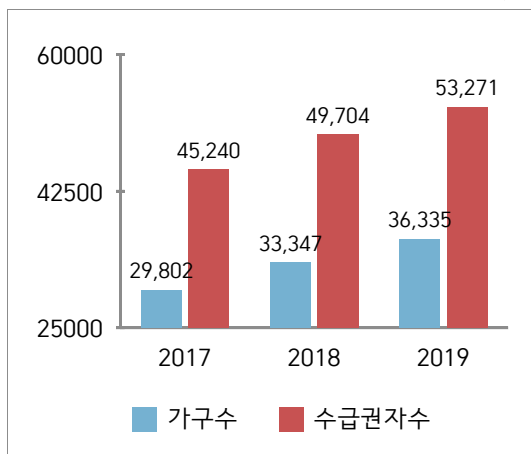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

구분	가구 총 수(A)*	기초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B/A)
		가구 수(B)	수급권자 수	
2017	597,736	29,802	45,240	4.99
2018	602,175	33,347	49,704	5.54
2019	609,043	36,335	53,271	5.97

출처: *통계청 일반가구 현황. 각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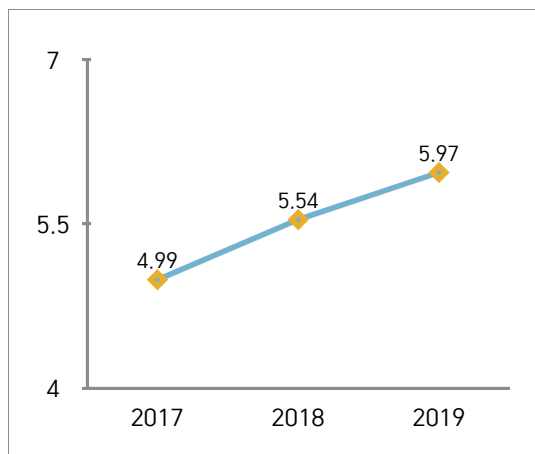
[그림 3-37]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명



[그림 3-38]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 대전광역시 기초주거급여 가구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예산은 2017년 29,595백만원, 2018년 36,261백만원, 2019년 53,922백만원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주거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2018년 22.5%(6,666백만원), 2019년 48.7%(17,661백만원)가 증가함

〈 표 3-70 〉 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	29,595,223	36,261,081	53,921,826

출처: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서(본예산 기준) 선진주거복지 향상(사회복지/주택) 각 연도

※ 주거급여 예산 = 현금주거급여 지원예산 + 현물주거급여 지원예산

□ 전국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은 2017년 4.76%, 2018년 5.35%, 2019년 5.84%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7대 특·광역시도 전국 추세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 2019년도를 기준으로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 8.41%로 나타남. 그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7.65%, 대구광역시 7.58%의 순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 4.08%로 나타남

〈 표 3-71 〉 전국 기초주거급여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전국	4.76	5.35	5.84
서울	4.15	4.72	5.33
부산	6.81	7.64	8.41
대구	6.11	6.88	7.58
인천	5.08	5.86	6.56
광주	6.15	7.17	7.65
대전	4.99	5.54	5.97
울산	2.85	3.50	4.08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일반가구 현황. 각 연도

3)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주거 7-3)

□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총 주택수에서 민간부문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증감의 변화를 보임

○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4.22%, 2017년 3.14%, 2018년 3.80%로 증감의 변화를 보임

○ 대전광역시 주택 총 수는 2017년은 전년 대비 3,900호(0.65%), 2018년은 전년 대비 6,100호(1.01%)가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 임대주택 수는 2017년은 전년 대비 6,396호(-25.2%), 2018년은 전년 대비 4,212호(22.2%)가 증가하였음

〈 표 3-72 〉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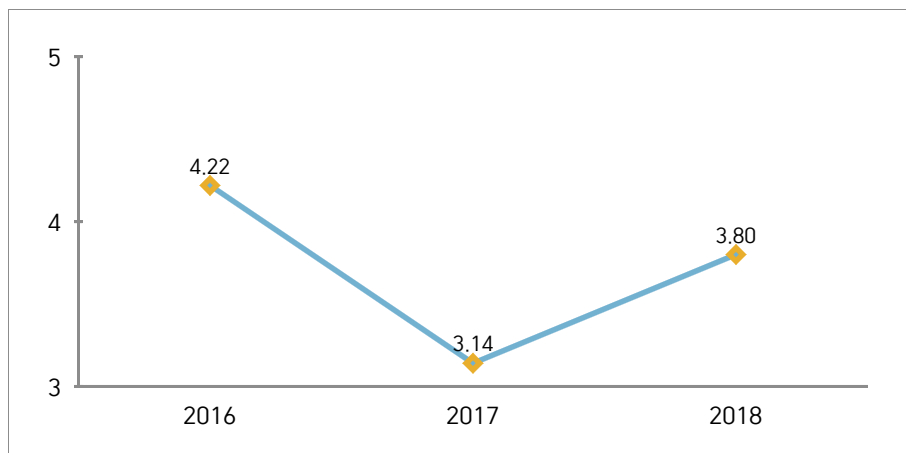
단위 : 주택수, %

구분	2016	2017	2018
주택 총 수(A)	601,000	604,900	611,000
민간부문 임대주택 수(B)	25,386	18,990	23,202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B/A)	4.22	3.14	3.80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그림 3-39] 대전광역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

단위: %



□ 전국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4.61%, 2017년 4.94%, 2018년 6.79%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대전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임
- 7대 특·광역시 중의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나머지 광역시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 2018년도를 기준으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11.69%임. 그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8.45%의 순임

〈 표 3-73 〉 전국 민간임대주택 현황

단위 : 주택수, %

구분	2016			2017			2018		
	총주택수	민간임대주택수	비율	총주택수	민간임대주택수	비율	총주택수	민간임대주택수	비율
전국	19,877,000	915,661	4.61	20,313,400	1,002,922	4.94	20,818,000	1,414,422	6.79
서울	3,644,000	226,924	6.23	3,671,500	249,833	6.80	3,682,400	430,596	11.69
부산	1,376,000	103,178	7.50	1,396,000	90,441	6.48	1,412,900	119,458	8.45
대구	966,000	14,824	1.53	988,400	21,912	2.22	996,100	19,834	1.99
인천	1,073,000	41,858	3.90	1,084,200	36,221	3.34	1,107,800	54,642	4.93
광주	595,000	32,899	5.53	606,200	35,460	5.85	616,500	31,981	5.19
대전	601,000	25,386	4.22	604,900	18,990	3.14	611,000	23,202	3.80
울산	457,000	113,79	2.49	468,400	10,137	2.16	476,000	12,981	2.73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주거 7-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은 총 가구 중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256백만원, 2018년 483백만원, 2019년 374백만원, 2020년 267백만원으로 나타나, 2018년 이후는 감소하는 추세임

○ 전년 대비 예산 변화는 2018년도 88.6%(227백만원)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22.6%(109백만원), 28.6%(107백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74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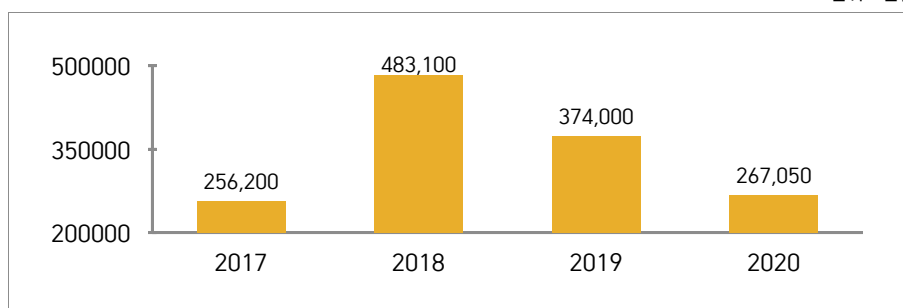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예산	256,200	483,100	374,000	267,050

출처: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서(본예산 기준) 지역에너지 활성화(산업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 그림 3-40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단위: 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를 확인하여 지표 관리 필요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확인되었으나, 지원가구 수를 확인하여 지원가구 비율을 산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가구 당 소요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표 관리가 필요함

제8절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 지표임. 즉, 자살사망률,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건강생활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임

〈 표 3-75 〉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8-1	자살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 수)×100
8-2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8-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해당 시군구 091 보건의료부문 예산/해당 시군구 일반회계 예산)×100
8-4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선별치매검사 수/75세 이상 독거노인
8-5	건강생활실천율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8-6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2. 건강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자살사망률(건강 8-1)

- 자살사망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로 측정함
- 대전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7년 20.1명, 2018년 24.5명, 2019년 24.8명으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2019년도는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유성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외 4개 기초자치단체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 2019년도 기준으로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27.5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동구 27.1명, 대덕구 25.0명, 서구 23.6명, 유성구 21.3명의 순임

〈 표 3-76 〉 대전광역시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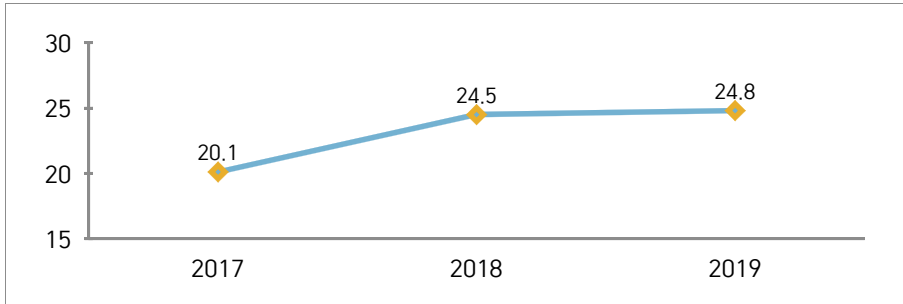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구분		2017	2018	2019
대전		20.1	24.5	24.8
기초자치단체	동구	17.3	28.0	27.1
	중구	25.5	23.0	27.5
	서구	20.6	26.6	23.6
	유성구	16.8	19.0	21.3
	대덕구	24.7	26.0	25.0

출처: 중앙자살센터예방센터 한국자살현황. 각 연도

[그림 3-41] 대전광역시 자살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2017년 24.3명,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7대 특·광역시 중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 증감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 기준으로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가 24.9명이며,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24.8명, 부산광역시 24.5명, 인천광역시 22.5명, 광주광역시 21.9명, 서울특별시 18.7명의 순임

〈 표 3-77 〉 전국 자살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구분	2017	2018	2019
전국	24.3	26.6	26.9
서울	18.1	18.9	18.7
부산	22.4	23.0	24.5
대구	21.3	23.1	24.9
인천	21.0	24.3	22.5
광주	20.6	23.1	21.9
대전	20.1	24.5	24.8
울산	22.3	24.2	24.8

출처: 중앙자살센터예방센터 한국자살현황. 각 연도

2) 중증응급환자 걱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건강 8-2)

- 중증응급환자 걱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응급환자가 걱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다만, 본 지표에서는 1시간 미만 도착률을 기준으로 측정함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1시간 미만 도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1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2017년 33.5%, 2018년 33.5%, 2019년 32.7%로 나타나 감소하는 추세임
 - 2시간 미만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실 도착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47.2%, 2018년 47.0%, 2019년 47.6%로 나타나 5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78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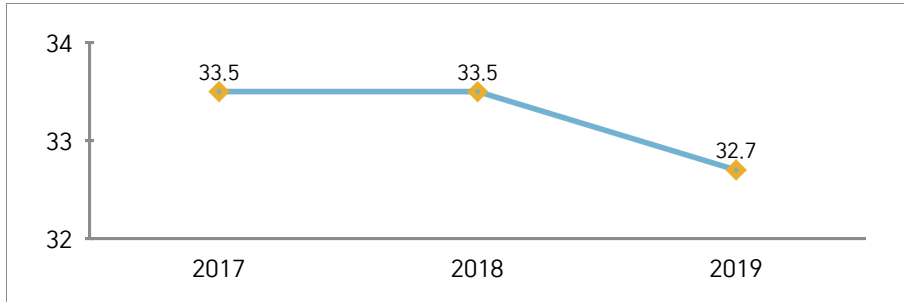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시간이상
2017년	급성심근경색	21.6	14.4	8.2	14.6	41.2
	뇌졸중	19.6	13.1	8.3	12.6	46.5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39.8	13.7	7.4	11.6	27.5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38.7	14.0	7.5	11.4	28.5
	계	33.5	13.7	7.7	11.9	33.2
2018년	급성심근경색	25.1	13.7	9.2	12.4	39.8
	뇌졸중	19.4	12.5	7.9	13.1	47.1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39.9	13.9	6.6	10.8	28.8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38.5	13.9	6.7	11.0	30.0
	계	33.5	13.5	7.1	11.5	34.3
2019년	급성심근경색	24.4	14.5	7.2	16.0	37.9
	뇌졸중	18.7	13.7	8.0	13.0	46.8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39.7	15.6	6.6	10.3	27.8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37.5	15.2	6.8	10.8	29.7
	계	32.7	14.9	7.1	11.5	33.8

출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자료. 각 연도

※ 대전광역시 각 년도 기관수는 5개소임

[그림 3-42]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1시간 미만)

단위: %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발생 건수는 2017년 20,600건, 2018년 20,282건, 2019년 20,070건으로 감소 추세임

〈 표 3-79 〉 대전광역시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017년	급성심근경색	1,322	286	190	108	193	545
	뇌졸중	4,780	935	625	397	602	2,221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5,235	2,082	719	385	608	1,440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9,263	3,587	1,292	698	1,050	2,635
	계	20,600	6,890	2,826	1,588	2,453	6,841
2018년	급성심근경색	1,341	336	183	123	166	533
	뇌졸중	4,773	925	596	378	625	2,248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5,222	2,082	727	342	566	1,505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8,946	3,441	1,241	602	984	2,678
	계	20,282	6,784	2,747	1,445	2,341	6,964
2019년	급성심근경색	1,371	334	199	99	219	520
	뇌졸중	4,788	893	655	381	620	2,239
	중증외상(ICISS 2008 기반)	5,205	2,065	814	342	535	1,449
	중증외상(ICISS 2015 기반)	8,706	3,268	1,320	595	942	2,581
	계	20,070	6,560	2,988	1,417	2,316	6,789

출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자료. 각 연도

※ 대전광역시 각 년도 기관수는 5개소임

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건강 8-3)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일반회계 예산 중 해당 시군구의 091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1,491백만원, 2019년 66,649백만원, 2020년 70,244백만원으로 예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은 2018년 1.76%, 2019년 1.73%, 2020년 1.59%로 감소하는 추세임
 - 즉,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019년 10.2%, 2020년 14.9% 증가한 반면에 보건의료 예산은 2019년 8.4%, 2020년 5.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80 〉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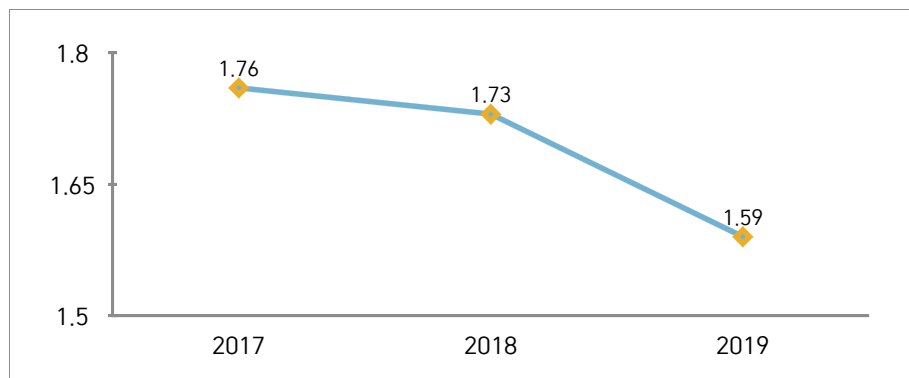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A)	보건의료예산(B)	비율(B/A)
2018	3,488,734,000	61,490,983	1.76
2019	3,845,524,000	66,649,471	1.73
2020	4,418,200,000	70,243,875	1.59

출처: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서(본예산 기준) 보건의료(091)

〔 그림 3-43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 예산 비율

단위: %



4)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건강 8-4)

□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율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선별 치매검사 수검자 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함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는 2017년 16,939명, 2018년 18,081명, 2019년 19,173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7년 9.7%, 2018년 9.9%, 2019년 10.0%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수와 유병률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서구가 5,442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중구 4,287명, 동구 3,921명, 유성구 3,050명, 대덕구 2,474명의 순임. 유병률은 중구와 유성구가 10.2%로 가장 높고, 동구 10.0%, 서구와 대덕구가 각 9.8%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81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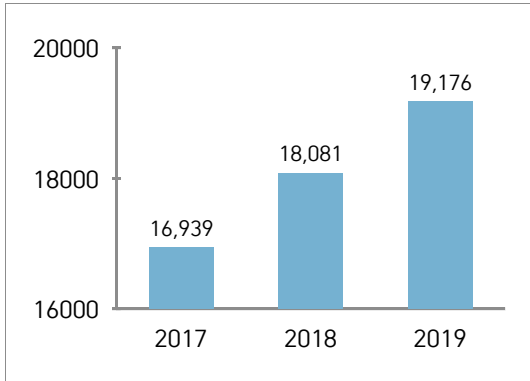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대전		16,939	9.7	18,081	9.9	19,173	10.0
기초자치단체	동구	3,457	9.6	3,683	9.8	3,921	10.0
	중구	3,792	9.7	4,049	10.0	4,287	10.2
	서구	4,829	9.6	5,140	9.8	5,442	9.8
	유성구	2,683	10.2	2,876	10.2	3,050	10.2
	대덕구	2,179	9.4	2,334	9.7	2,474	9.8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오늘은 치매현황

※ 유병률=(65세 이상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노인인구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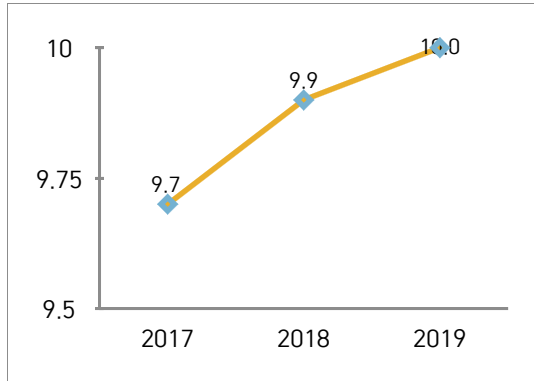
[그림 3-44]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단위: 명



[그림 3-45] 65세 이상 치매환자 유병률

단위: %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함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환자 유병률은 2020 년도를 기준으로 10.3%임
- 7대 특·광역시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 10.0%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각 9.8%,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 9.3%, 울산광역시가 8.6%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82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유병률
전국	750,473	10.0	750,488	10.2	794,280	10.3	8,322,795	10.3
서울	116,132	9.1	123,699	9.2	131,204	9.4	137,733	9.3
부산	47,953	8.9	51,262	9.0	54,561	9.2	58,041	9.3
대구	31,228	9.3	33,461	9.5	35,665	9.7	38,049	9.8
인천	32,183	9.8	34,429	9.9	36,639	9.9	38,935	9.8
광주	16,760	9.6	17,809	9.8	18,838	9.9	20,380	10.0
대전	16,939	9.7	18,081	9.9	19,173	10.0	20,615	10.0
울산	9,654	8.6	10,360	8.7	11,069	8.7	11,731	8.6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오늘은 치매현황

- 대전광역시 치매상병자 수와 65세 이상 상병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대전광역시 치매상병자 수는 2016년 16,899명, 2017년 18,767명, 2018년 21,017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치매상병자 수 중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6년 15,209명, 2017년 16,705명, 2018년 18,823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체 치매상병자 수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90.0%, 2017년 89.0%, 2018년 89.6%로 나타남
 -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치매상병자 수는 서구가 27.6%로 가장 많고, 동구 22.1%, 중구 21.2%의 순임. 65세 이상 치매상병자 수도 서구 27.3%, 동구 22.3%, 중구 21.2%의 순임

〈 표 3-83 〉 대전광역시 치매상병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대전		16,899	15,209	18,767	16,705	21,017	18,823
기초 자치 단체	동구	3,406	3,107	3,845	3,458	4,640	4,203
	중구	3,604	3,250	4,022	3,577	4,459	3,989
	서구	4,954	4,407	5,384	4,730	5,794	5,132
	유성구	2,774	2,518	3,168	2,836	3,507	3,156
	대덕구	2,161	1,927	2,348	2,104	2,617	2,343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보고서. 각 연도

- 전국 치매상병자 수와 65세 이상 상병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전국 치매상병자 수는 2016년 656,026명, 2017년 731,779명, 2018년 844,285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치매상병자 수 중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6년 596,104명, 2017년 661,048명, 2018년 761,364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체 치매상병자 수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90.5%, 2017년 89.5%, 2018년 89.2%로 나타나 감소추세임

〈 표 3-84 〉 전국 치매상병자 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전체 치매상병자 수	65세 이상 수
전국	656,026	596,104	731,779	661,048	844,285	761,364
서울	88,269	78,950	100,722	88,894	117,991	103,865
부산	49,208	44,534	53,682	48,045	61,339	54,699
대구	30,432	27,117	34,069	30,067	38,580	34,289
인천	28,749	25,020	32,963	28,856	38,286	33,524
광주	20,346	18,370	22,021	19,802	24,436	21,994
대전	16,899	15,209	18,767	16,705	21,017	18,823
울산	10,539	9,349	12,044	10,503	13,535	11,914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보고서. 각 연도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치매관리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치매관리비용은 2016년 325,688백만원, 2017년 351,376백만원, 2018년 369,303백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임

○ 65세 이상 치매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20.4백만원임

〈 표 3-85 〉 대전광역시 연간 치매관리비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대전		15,858	325,688	16,939	351,376	18,081	369,303
기초자치단체	동구	3,256	66,871	3,457	71,718	3,683	75,225
	중구	3,542	72,745	3,792	78,655	4,049	82,700
	서구	4,525	92,933	4,829	100,159	5,140	104,984
	유성구	2,499	51,324	2,683	55,655	2,876	58,742
	대덕구	2,037	41,835	2,179	45,189	2,334	47,672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보고서. 각 연도

- 전국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와 치매관리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20.4백만원임

〈 표 3-86 〉 전국 연간 치매관리비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비용
전국	661,707	13,589,990	750,473	14,633,740	750,488	15,328,655
서울	108,940	2,237,385	116,132	2,408,943	123,699	2,526,542
부산	44,691	917,854	47,953	994,702	51,262	1,047,022
대구	29,121	598,081	31,228	647,763	33,461	683,438
인천	30,049	617,140	32,183	667,577	34,429	703,209
광주	15,683	332,094	16,760	347,647	17,809	363,747
대전	15,858	325,688	16,939	351,376	18,081	369,303
울산	9,000	184,840	9,654	200,071	10,360	211,602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보고서, 각 연도

- 대전광역시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 지표는 향후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지표는 75세 이상 노인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의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을 높여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지표를 생성·관리하기 어렵다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현황자료를 활용하여 75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건강생활실천율(건강 8-5)

- 건강생활실천율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 중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측정한 지표를 사용함
-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은 2016년 39.9%, 2017년 34.3%, 2018년 37.1%, 2019년 36.2%로 나타나 증감의 변화를 보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동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대로 대덕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중구, 서구, 유성구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2019년도를 기준으로 건강생활실천율은 서구가 43.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의 순임

〈 표 3-87 〉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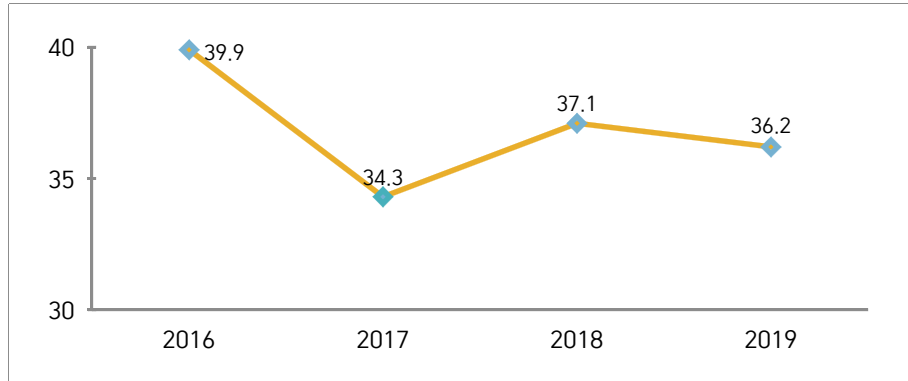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전		39.9	34.3	37.1	36.2
기초자치단체	동구	31.1	33.9	37.3	38.4
	중구	30.1	29.0	37.0	32.5
	서구	47.9	36.6	37.2	43.9
	유성구	41.6	34.7	41.0	32.2
	대덕구	41.5	35.7	30.0	25.8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08~2019)

※ 건강생활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

[그림 3-46]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단위: %



□ 7대 특·광역시의 건강생활실천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7대 특·광역시의 건강생활실천율을 살펴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건강생활실천율은 서울특별시가 45.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37.5%, 대전광역시 36.2%, 인천광역시 35.7%, 대구광역시 33.7%, 광주광역시 33.0%, 울산광역시 30.1%의 순임

〈 표 3-88 〉 7대 특광역시 건강생활실천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서울	40.5	44.9	50.0	45.8
부산	31.8	35.6	40.7	37.5
대구	27.8	32.2	35.1	33.7
인천	31.0	32.7	36.9	35.7
광주	30.0	34.2	35.4	33.0
대전	39.9	34.3	37.1	36.2
울산	24.0	28.6	32.6	30.1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08~2019)

※ 건강생활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6) 우울감 경험률(건강 8-6)

- 우울감 경험률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측정한 지표를 사용함
-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7.4%, 2017년 5.4%, 2018년 4.7%, 2019년 4.2%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우울감 경험률은 대덕구가 7.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중구 6.4%, 유성구 3.8%, 동구 2.8%, 서구 2.7%의 순임

〈 표 3-89 〉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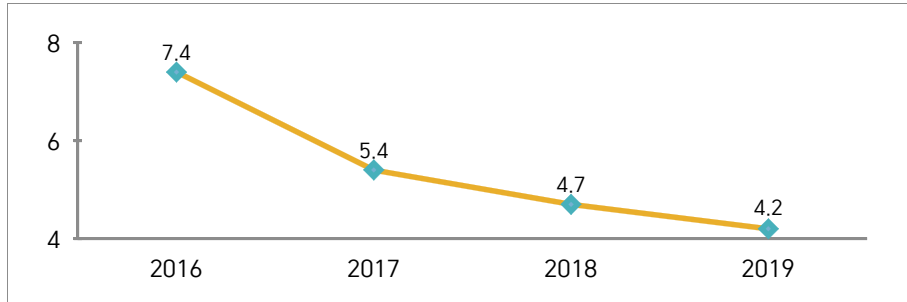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전		7.4	5.4	4.7	4.2
기초자치단체	동구	4.9	6.7	4.4	2.8
	중구	9.8	4.8	5.4	6.4
	서구	7.3	5.3	4.8	2.7
	유성구	7.6	4.6	3.7	3.8
	대덕구	7.0	6.3	5.7	7.8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08~2019)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그림 3-47] 대전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7대 특·광역시 우울감 경험률은 감소, 증가, 증감의 변화 등 다양한 추이 변화를 보임
- 7대 특·광역시의 우울감 경험률은 대전광역시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이외의 광역자치단체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 2019년도를 기준으로 우울감 경험률은 인천광역시가 7.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6.5%, 부산광역시 6.1%,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5.5%, 울산광역시 5.4%, 대전광역시 4.2%의 순임. 즉, 대전광역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90 〉 7대 특·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서울	7.0	7.2	5.1	6.5
부산	6.1	6.4	6.7	6.1
대구	5.0	4.6	3.5	5.5
인천	7.2	7.5	8.4	7.6
광주	4.7	5.5	4.5	5.5
대전	7.4	5.4	4.7	4.2
울산	3.8	4.4	4.7	5.4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08~2019)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제9절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권과 삶의 질을 높일 다양성이 보장되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 지표임. 즉,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 평생학습참여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 등임

〈 표 3-91 〉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9-1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학교 회계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학생 수) 또는 (대전시의 교육청 지원 예산/학생 수)
9-2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취약 계층지원 편성 예산/총 예산×100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교육복지우선 대상
9-3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예산/학교 밖 청소년 수)
9-4	평생학습참여율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학습자 수 합계(연인원)/주민등록인구 수)×100
9-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자 수/학자금대출자 수)×100
9-6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중 취업자 수/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수)×100

2. 교육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분석

1)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교육 9-1)

-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학교 회계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학생 수는 2017년 210,023명, 2018년 201,400명, 2019년 193,11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학생 1인당 투자액은 2017년 909만원, 2018년 1,023만원, 2019년 1,232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92 〉 대전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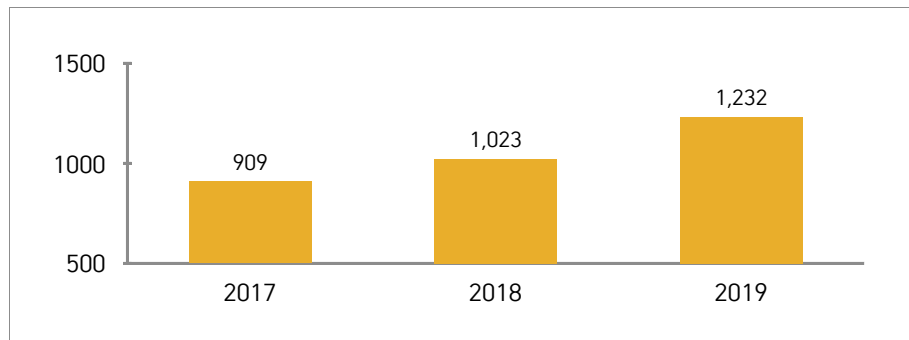
단위: 억원, 명, 만원

구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학생 수	1인당 교육 투자액
2017	19,100	210,023	909
2018	20,607	201,400	1,023
2019	23,800	193,119	1,232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서(본예산)

〔 그림 3-48 〕 대전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비교

단위: 만원



- 전국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과 학생 1인당 투자액은 증가 추세임
 - 전국 교육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투자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의 전국 평균은 2017년 1,019만원, 2018년 1,140만원, 2019년 1,316만원임
 - 7대 특·광역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투자액(2019년)은 부산광역시가 1,360만원으로 가장 많음. 그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 1,251만원, 대전광역시 1,232만원, 대구광역시 1,226만원의 순임.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 1,034만원임

〈 표 3-93 〉 전국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비교

단위: 억원, 천명, 만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	학생 수	1인당 투자액	예산	학생 수	1인당 투자액	예산	학생 수	1인당 투자액
전국	656,111	6,440	1,019	716,123	6,281	1,140	804,008	6,112	1,316
서울	89,990	1,032	872	96,005	990	969	109,680	949	1,156
부산	39,359	376	1,046	41,232	364	1,133	47,977	353	1,360
대구	30,697	319	962	33,986	308	1,103	36,285	296	1,226
인천	34,335	373	922	38,581	365	1,058	42,233	354	1,192
광주	20,201	220	916	21,238	213	995	21,238	205	1,034
대전	19,100	210	909	20,607	201	1,023	23,800	193	1,232
울산	16,512	162	1,022	16,963	157	1,083	18,976	152	1,251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각 지역별 교육청 세출예산서(본예산)

2)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교육 9-2)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중 취약계층인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복지우선 대상 학생 등에게 투자하는 예산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임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복지우선 대상 학생 등)을 위한 예산(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4,922백만원, 2019년 5,801백만원, 2020년 6,395백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해당 세부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 예산에서의 비중은 2018년 1.49%, 2019년 1.32%, 2020년 1.42%임. 해당 세부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 예산에서의 비중은 2018년 76.02%, 2019년 70.37%, 2020년 71.83%임

〈 표 3-94 〉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2018	2019	2020
예산	교육청 총예산(A)	1,903,224,104	2,127,975,550	2,239,712,755
	정책사업 예산(B)	331,345,344	438,106,909	449,214,928
	단위사업 예산(C)	6,474,754	8,243,435	8,902,755
	세부사업 예산(D)	4,922,184	5,801,122	6,394,579
비율	세부사업 예산/교육청 총 예산(D/A)	0.26	0.27	0.29
	세부사업 예산/정책사업 예산(D/B)	1.49	1.32	1.42
	세부사업 예산/단위사업 예산(D/C)	76.02	70.37	7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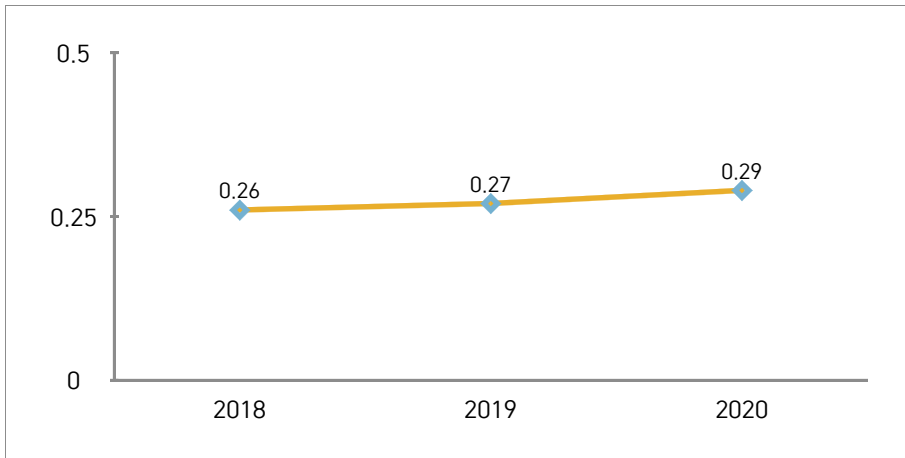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서(본예산). 각 연도

※ 051-02: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단위사업)

※ 051-03: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 특별활동지원(단위사업),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지원(세부사업)

[그림 3-49]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

단위: %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학생 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예산 비중은 취약계층 학생 규모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인당 투자액 등 부가적인 지표 생성·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3)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교육 9-3)

-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 수를 고려하여 1인당 투자액을 측정하는 지표임. 본 지표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해당하며, 정부합동평가지표 측정 결과를 사용함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자 수는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학업중단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2016~2018)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업중단자 수는 증감의 변화가 있음. 학업중단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95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A)	2016	190,672	85,939	47,646	57,087
	2017	182,971	84,240	44,961	53,770
	2018	175,460	83,453	42,675	49,332
학업중단자 수 (B)	2016	1,657	608	322	727
	2017	1,592	555	288	749
	2018	1,632	553	304	775
학업중단율 (B/A)	2016	0.9	0.7	0.7	1.3
	2017	0.9	0.7	0.6	1.4
	2018	0.9	0.7	0.7	1.6

출처: 교육통계서비스/유초중등통계/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생 수 × 100

□ 대전광역시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3개소 운영 중임

-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219개소이며, 대전광역시에는 총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대전광역시는 동구(대전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서구, 유성구에 1개소가 있으나, 중구와 대덕구에는 없는 실정임

〈 표 3-96 〉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청소년 지원센터	219	26	17	9	9	6	3	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 목표치와 지원 노력도(성과비율 목표)로 구성하여 평가함.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인원 목표치와 성과비율 목표는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목표치는 2017년 1,186명, 2018년 1,100명, 2019년 1,292명으로 증감의 변화를 보임. 성과비율 목표는 2017년 34.7%, 2018년 49.1%, 2019년 47.1%로 증감의 변화를 보임

〈 표 3-97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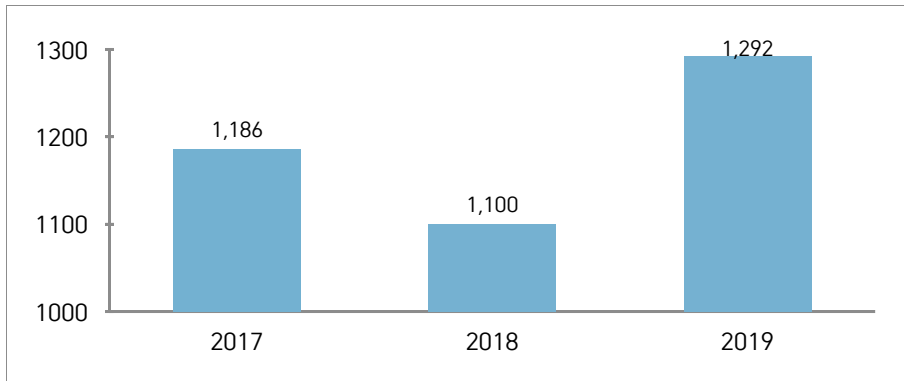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지원인원 목표	1,186	1,100	1,292
성과비율 목표	34.7	49.1	47.1

출처: 정부합동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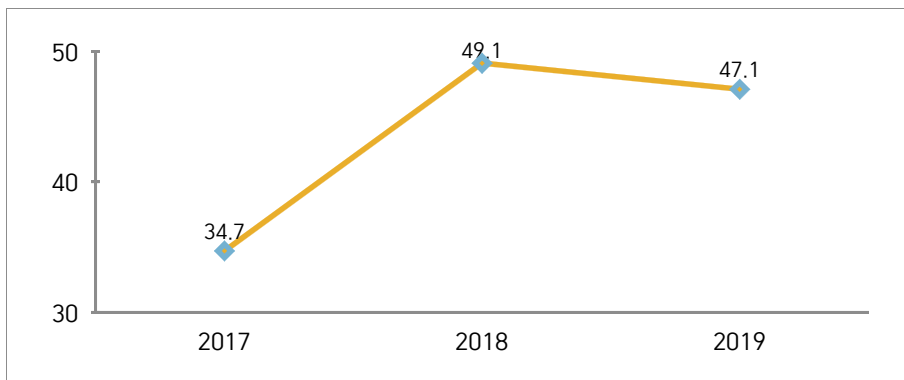
[그림 3-50]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지원인원 목표)

단위: 명



[그림 3-51]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성과비율 목표)

단위: %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를 살펴보면, 지원인원 목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과비율 목표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목표는 2017년 32,734명, 2018년 35,154명, 2019년 40,517명임. 7대 특·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목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지원인원의 증가율은 울산광역시가 24.0%(137명)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20.9%(947명), 대전광역시 17.5%(192명),

부산광역시 12.9%(250명), 인천광역시 5.6%(74명), 광주광역시 1.9%(35명)의 순임.
대구광역시는 6.8%(193명)가 감소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의 성과비율 목표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2017년 37.3%, 2018년 42.5%, 2019년 41.2%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성과비율 목표는 인천광역시가 49.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47.1%, 광주광역시 44.6%, 서울특별시 42.1%, 부산광역시 38.9%, 울산광역시 37.6%, 대구광역시 32.9%의 순임
- 성과비율 목표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평균은 감소하였으며, 7대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증가하였고,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감소하였음

〈 표 3-98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지원인원 목표, 성과비율 목표)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지원인원 목표	성과비율 목표	지원인원 목표	성과비율 목표	지원인원 목표	성과비율 목표
전국	32,734	37.3	35,154	42.5	40,517	41.2
서울	4,009	39.2	4,532	39.9	5,479	42.1
부산	1,488	45.4	1,943	37.8	2,193	38.9
대구	2,404	27.5	2,844	38.4	2,651	32.9
인천	1,018	48.0	1,317	45.1	1,391	49.8
광주	1,351	49.4	1,822	41.2	1,857	44.6
대전	1,186	34.7	1,100	49.1	1,292	47.1
울산	443	47.9	571	39.1	708	37.6

출처: 정부합동평가 지표

4) 평생학습참여율(교육 9-4)

- 평생학습참여율은 전체 인구 중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학습자 수를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은 2017년 8.8%, 2018년 11.5%, 2019년 15.3%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중구, 서구, 유성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동구와 대덕구는 증감의 변화를 보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중구가 41.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유성구 20.7%, 서구 8.0%, 동구 4.6%, 대덕구 3.2%의 순임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54,724명)가 증가하였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유성구 9.5%(33,096명), 중구 7.0%(15,578명), 서구 1.4%(6,541명)가 증가하였고, 동구와 대덕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99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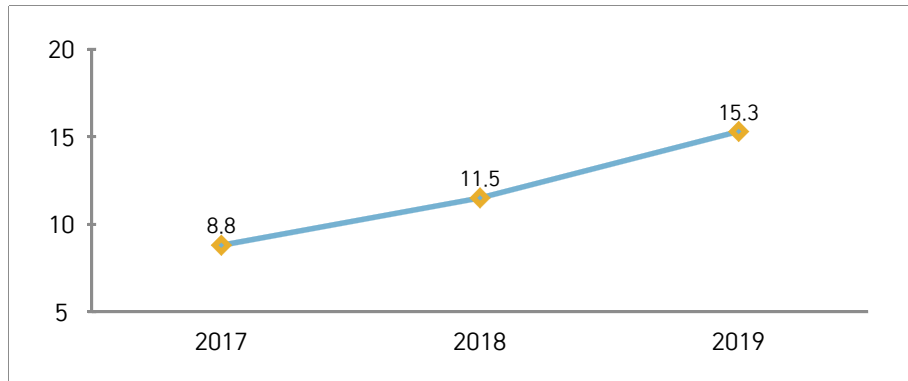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대전		8.8	11.5	15.3
기초자치단체	동구	3.6	4.7	4.6
	중구	22.3	34.3	41.4
	서구	5.9	6.5	8.0
	유성구	10.3	11.2	20.7
	대덕구	1.8	3.2	3.2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각 연도

【 그림 3-52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참여율

단위: %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학습기관 수는 감소 추세임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자 수(2019년도 기준)는 226,174명, 학습기관 수는 97개소임.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학습자 수는 중구가 99,458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기관 수는 서구가 29개소로 가장 많음
- 학습기관당 평생학습자 수(2019년도 기준)는 학습기관 1개소 당 평균 2,332명임.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중구가 개소 당 평균 3,82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유성구가 개소 당 평균 3,445명, 서구가 개소 당 평균 1,320명, 동구가 개소 당 평균 864명, 대덕구가 개소 당 평균 637명의 순임

〈 표 3-100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자 및 학습기관 수

단위: 명,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평생학습자 수	학습기관 수	평생학습자 수	학습기관 수	평생학습자 수	학습기관 수
대전	131,959	108	171,450	101	226,174	97
기초자치단체	동구	8,347	11	10,769	11	10,364
	중구	55,565	25	83,880	26	99,458
	서구	28,684	40	31,745	30	38,286
	유성구	35,941	21	39,240	25	72,336
	대덕구	3,422	11	5,816	9	5,730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각 연도

□ 전국 평생학습참여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평생학습참여율은 2017년 23.0%, 2018년 31.5%, 2019년 31.5%로 나타남. 7대 특·광역시 중 부산광역시는 2019년 21.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대전광역시 15.3%, 광주광역시 14.7%, 울산광역시 8.6%, 대구광역시 7.8%의 순임

〈 표 3-101 〉 전국 평생학습참여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전국	23.0	31.5	31.5
서울	80.2	121.2	111.4
부산	14.4	16.0	21.1
대구	11.0	11.0	10.5
인천	5.8	5.8	7.8
광주	10.1	9.8	14.7
대전	8.8	11.5	15.3
울산	10.4	9.8	8.6

5)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비율(교육 9-5)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비율은 학자금 대출자 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자 수를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현황

-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2017년 2,681명, 2018년 1,602명, 2019년 3,410명으로 증감의 변화가 있음. 연간 지원액은 2017년 202백만원, 2018년 207백만원, 2019년 271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17년 75천원, 2018년 129천원, 2019년 79천원을 지원함

〈 표 3-102 〉 대전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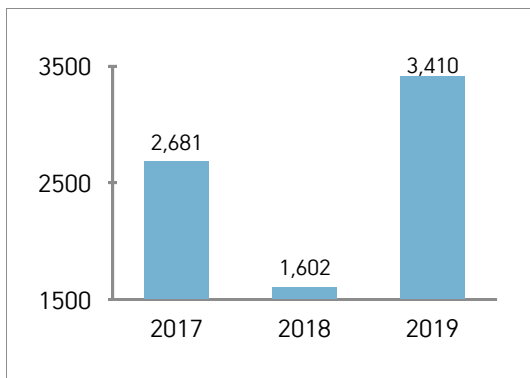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이자지원 예산	1인당 평균 지원액
2017	2,681	201,848	75
2018	1,602	207,055	129
2019	3,410	271,067	79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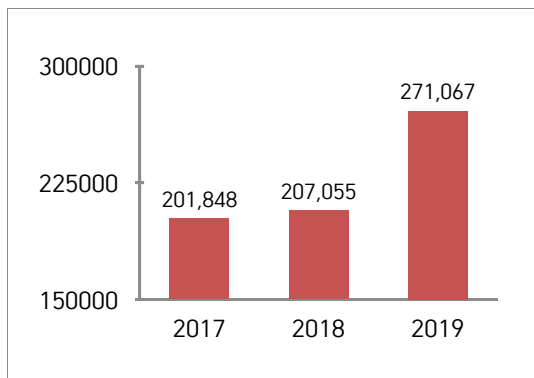
[그림 3-5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용 현황

단위: 명



[그림 3-54]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예산

단위: 천원



- 전국적으로 학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인원과 예산은 증가 추세임
- 전국의 학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인원은 2017년 53,139명, 2018년 60,616명, 2019년 63,437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지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2017년 3,741백만원, 2018년 4,796백만원, 2019년 5,314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7대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지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이며, 예산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으로 나타남

〈 표 3-103 〉 학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전국	53,139	3,741,314	60,616	4,795,841	63,437	5,314,409
서울	16,948	1,413,982	17,910	1,512,816	11,845	1,027,507
부산	2,592	163,570	4,103	275,407	0	0
대구	2,921	345,132	2,832	305,201	3,904	213,568
인천	0	0	0	0	1,511	26,958
광주	1,408	60,781	1,636	122,589	1,081	80,763
대전	2,681	201,848	1,602	207,055	3,410	271,067
울산	187	9,587	236	9,759	143	6,324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현황

6)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교육 9-6)

□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률은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중 취업자 수를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수는 동일하나, 소요예산은 증가 추세임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이용자 수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2,500명으로, 소요예산은 2019년 5,061백만원, 2020년 8,150백만원임

○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61.0%(3,089백만원)가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 1인당 소요 예산도 2019년 2,024천원에서 2020년 3,260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표 3-104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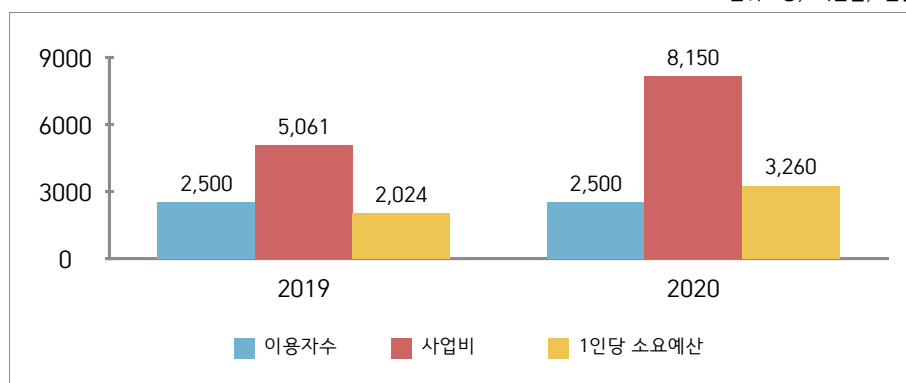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천원

구분	2019	2020
이용자수(A)	2,500	2,500
사업비(B)	5,061	8,150
1인당 소요 예산(A/B)	2,024	3,260

출처: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내부자료

〔 그림 3-55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천원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의 취업률은 확인할 수 없어 향후 대전광역시에서 행정자료의 확인 또는 구축을 통해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제10절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설정과 분석

1.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와 지표의 설정

-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의 전략목표는 「대전시민 모두가 가족처럼 믿고,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시민문화 조성」임
-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임. 즉,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 등임

〈 표 3-105 〉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산식
10-1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	(사회적자본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 연간 예산액
10-2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5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수
10-3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10-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원봉사 활동인원/자원봉사 등록인원) × 100
10-5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수/외국인 주민 수) × 100

2. 지역공동체 영역 시민복지기준 분석

1)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지역공동체 10-1)

□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각 구의 공동체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액을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은 증감의 변화를 보임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예산은 2018년 1,224백만원, 2019년 2,881백만원, 2020년 2,400백만원으로 나타남

〈 표 3-106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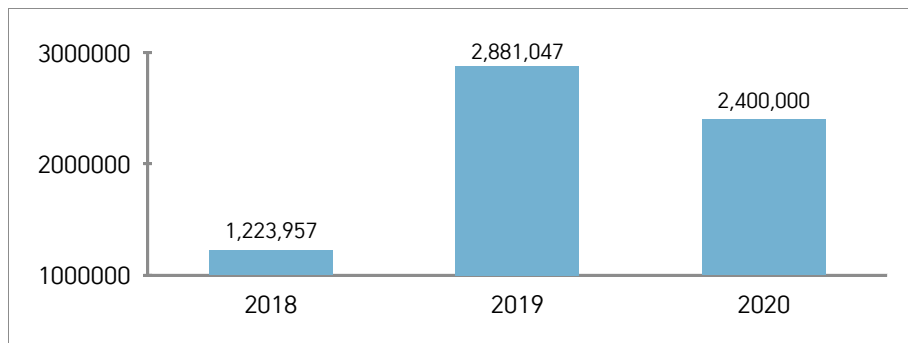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예산	1,223,957	2,881,047	2,400,000

출처: 대전시 세출예산서(본예산) 지역공동체 중간지원기관 운영 예산

【 그림 3-56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

단위: 천원



□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동구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조성·운영 중이며, 유성구는 2021년, 서구와 중구는 2022년에 조성 예정임

○ 향후 지속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조성·운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표 생성·관리가 필요함

2)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지역공동체 10-2)

-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는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5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동 수는 2019년 8개동으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21개동임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동 수는 2019년 8개동, 2020년 21개동, 2021년 21개동임
 - 지원 예산은 2019년 1,248백만원, 2020년 1,576백만원, 2021년 611백만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 표 3-107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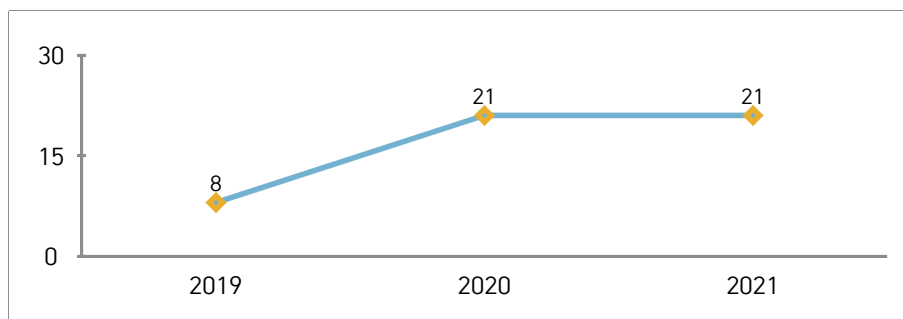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동

구분		2019	2020	2021
예산		1,248	1,576	611
대전		8	21	21
기초자치단체	동구	1	2	2
	중구	0	0	0
	서구	1	4	4
	유성구	3	3	3
	대덕구	3	12	12

출처: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 내부자료

〔 그림 3-57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동 수

단위: 동



3)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지역공동체 10-3)

-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는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실적과 예산 집행률은 감소 추세임
 - 마을만들기 사업 수의 추진 목표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행 실적은 2016년을 제외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달성률은 2016년 123.5%, 2017년 77.0%, 2018년 75.0%임
 -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은 소요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집행예산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집행률은 2016년 63.7%, 2017년 38.6%, 2019년 29.7%임
 - 사업별 집행예산은 2016년 사업당 평균 212만원, 2017년 사업당 평균 251만원, 2018년 사업당 평균 231만원으로 나타남

〈 표 3-108 〉 마을만들기(유형별, 단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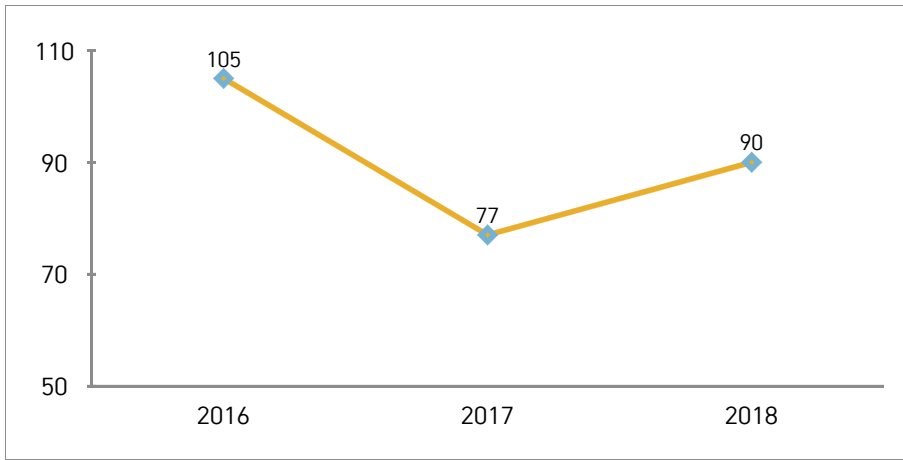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실적	추진목표(사업 수)	85	100	120
	이행실적(사업 수)	105	77	90
	달성률(%)	123.5	77.0	75.0
예산	소요예산(백만원)	350	500	700
	집행예산(백만원)	223	193	208
	집행률(%)	63.7	38.6	29.7

출처: 대전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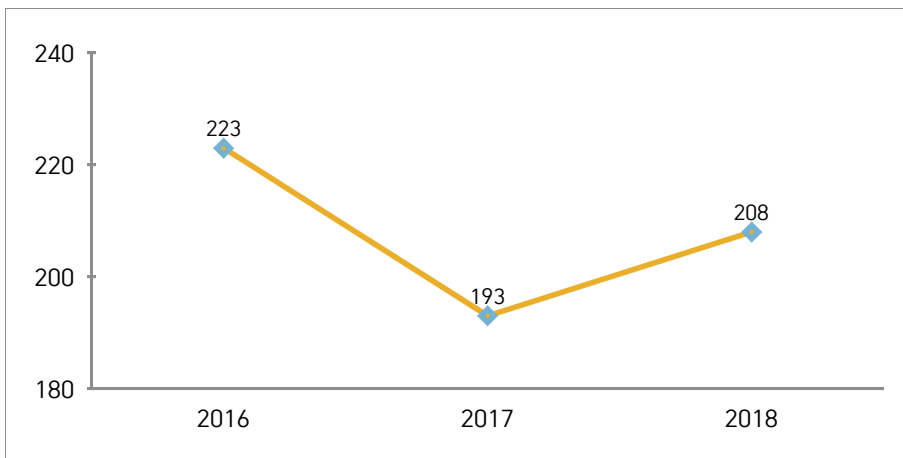
[그림 3-58]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

단위: 사업수



[그림 3-59]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표를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리빙랩지원사업, 마을미디어 지원, 공동체마을계획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표 측정 필요

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지역공동체 10-4)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대전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인구대비 참여율과 등록인원 대비 참여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2017년 443,588명에서 2019년 391,69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활동인원은 2017년 163,022명에서 2019년 163,58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구대비 등록인원 비율은 2017년 30.1%에서 2019년 26.1%로 감소하였음. 인구대비 참여율은 2017년 11.1%에서 2019년 10.9%로 감소하였음. 등록인원 대비 참여율은 2017년 36.8%에서 2019년 4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109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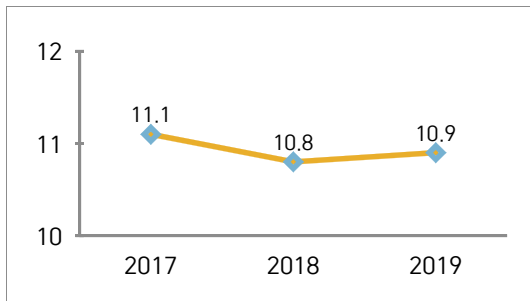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인구 수	등록인원	활동인원	인구대비 등록인원 비율	인구대비 활동인원 비율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 비율
2017	1,474,870	443,588	163,022	30.1	11.1	36.8
2018	1,489,936	414,281	161,296	27.8	10.8	38.9
2019	1,502,227	391,693	163,586	26.1	10.9	41.8

출처: 1365자원봉사센터.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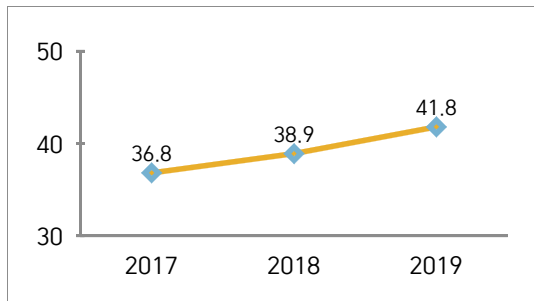
〔 그림 3-60 〕 인구 대비 활동인원 비율

단위: %



〔 그림 3-61 〕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 비율

단위: %



□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감소 추세임

○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2017년 51,350명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인구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7년 3.5%, 2018년 3.1%, 2019년 2.9%로 감소하는 추세임

〈 표 3-110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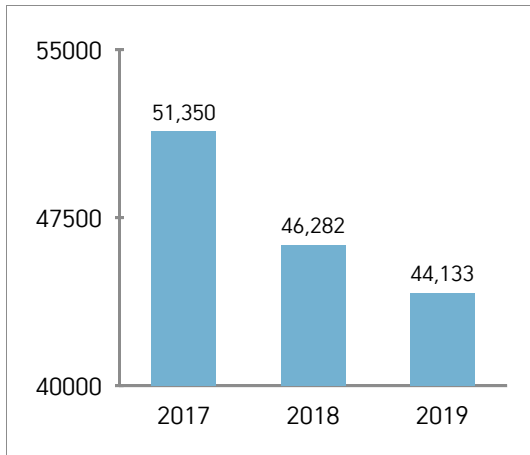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인구 수(A)	활동인원(B)	인구대비 참여율(B/A)
2017	1,474,870	51,350	3.5
2018	1,489,936	46,282	3.1
2019	1,502,227	44,133	2.9

출처: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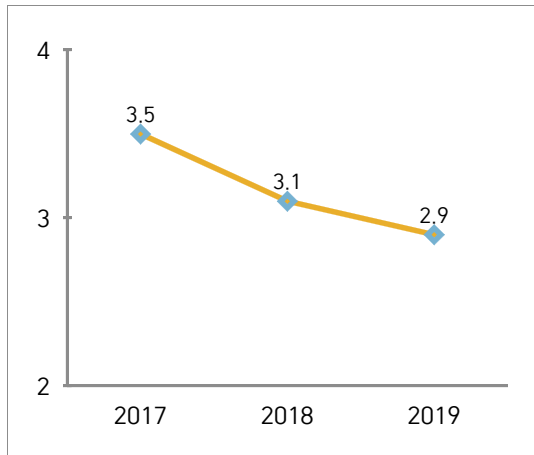
[그림 3-62]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인원

단위: 명



[그림 3-63] 사회복지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5)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지역공동체 10-5)

-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은 외국인주민 중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산출하여 측정하는 지표임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또한, 시장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8,404명, 2018년 31,100명, 2019년 34,148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2017년 1.9%, 2018년 2.1%, 2019년 2.3%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해서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동구가 3.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각각 2.8%, 중구 1.5%, 서구 1.4%의 순임

〈 표 3-111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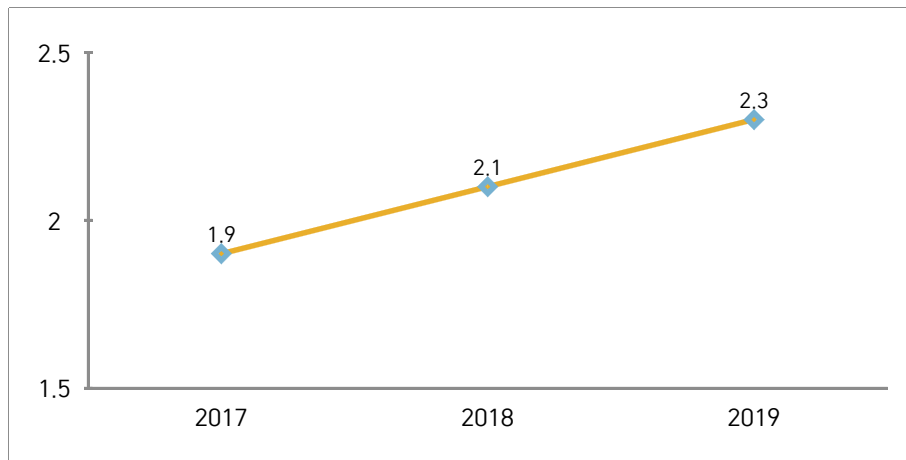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외국인주민 수	전체인구 대비 비율	외국인주민 수	전체인구 대비 비율	외국인주민 수	전체인구 대비 비율
대전		28,404	1.9	31,100	2.1	34,148	2.3
기초자치단체	동구	6,329	2.6	7,152	3.0	8,293	3.5
	중구	3,192	1.3	3,400	1.4	3,613	1.5
	서구	5,859	1.2	6,262	1.3	6,919	1.4
	유성구	8,684	2.4	9,697	2.7	10,347	2.8
	대덕구	4,340	2.3	4,589	2.5	4,976	2.8

출처: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그림 3-6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 대전광역시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므로, 향후 이용 현황 등 행정자료를 구축하여 지표를 생성·관리가 필요함
-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초에 개소해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적응 교육, 법률·생활상담, 편의시설 운영, 자마우호도시 협력사업,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임

제4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제4장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제1절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방안

1. 대전시민기준 영역(분야)별 지표 관리

□ 영유아 돌봄 분야

- 영유아 돌봄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표 측정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1-1), 보육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1-2)은 행정 자료를 통해 지표를 생성·관리가 가능함
-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1-3)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로 인해 현재는 지표 수준 측정에 한계가 있더라도 일부 형태의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로 한정하여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지표를 생성·관리하여야 함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1-4)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생성·관리되나,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지표는 하나의 지표이나, 각각 지표를 생성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등급 우수비율(1-5)은 인증제도에서 평가제도로 변경되는 과정이어서 지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수준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부터 지속해서 생성·관리가 필요함

□ 아동 돌봄 분야

- 아동 돌봄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이며, 대부

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2-1)은 온종일돌봄에 해당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행정자료가 확보되어야 온전하게 지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협조 체계 속에서 지표 수준을 생성·관리하고,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지표 수준이 변화될 수 있음
- 아동학대 발견율(2-3),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2-2),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율(2-4)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지표로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2개소)의 행정자료를 통해 생성·관리가 가능함. 아동보호와 관련된 지표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지표에 따라서는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노인 돌봄 분야

- 노인 돌봄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3-1), 노인학대 발견율(3-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률(3-4),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3-5)은 행정자료를 통해 생성·관리가 가능함
-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률(3-3)은 행정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생성·관리하여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돌봄 분야

- 장애인 돌봄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4-1)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4-4)은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4-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4-3),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4-5)은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향후 행정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성·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표가 측정하고자 목적을 취

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표 생성·관리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즉, 대부분의 지표에서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이용률도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이며, 모든 지표가 생성·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지원센터 설치 수(5-2)는 5개 기초자치단체 중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5-3)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지표 수준이 지속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생성·관리가 필요함
- 남성 육아휴직률(5-1),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5-4)는 시·구,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되는 지표임. 현재는 지표의 생성·관리의 한계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지표를 측정하지만, 향후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지표를 생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즉, 시민은 소속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므로 모든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분야

- 소득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지표가 생성·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지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표에 따라서는 증가 추세가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6-2), 긴급복지지원 건수(6-4),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수(6-5) 등은 지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시민의 경제생활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소득 분야의 지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주거 분야

- 주거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지표가 생성·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7-1)과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7-3)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향상을 통해 시민복지의 수준을 높여야 함.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또한, 민간부문 임대주택 비율은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7-2)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가구 비율(7-4)은 저소득층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시민이 필요 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 분야

- 건강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 지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야 관리할 수 있음
- 자살사망률(8-1),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8-2),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8-3), 건강생활실천율(8-5), 우울감 경험률(8-6) 등의 지표는 정기적인 조사나 행정자료에 의해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75세 이상 독거노인 선별 치매검사 수검률(8-4)은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표 중 자살사망률(8-1)은 증가 추세이고, 중증응급환자 발병 후 응급실(1시간 미만) 도착률(8-2) 및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8-3)은 감소 추세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 분야

- 교육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6개 지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야 관리할 수 있음
-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9-1),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비율(9-2), 학교교육 외

청소년 1인당 투자액(9-3) 등의 지표는 예산과 관련된 지표이므로 예산 수립 시 지표 수준을 고려하여야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포괄하는 지표이므로 다양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지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용률(9-5),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취업률(9-6)은 대학생과 청년의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이용 조건, 지원 범위 등 제도의 보완을 통해 지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함
- 평생학습참여율(9-4)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분야

- 지역공동체 분야의 시민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총 5개 지표이며,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함. 일부 지표는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향후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10-1)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되면 지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행정동 주민자치회 지원 사례 수(10-2), 마을만들기 지원 사례 수(10-3)는 대전광역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한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향후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지표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이용률(10-5)은 2021년 센터가 개소·운영하면 지표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해서 지표 수준인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2. 대전시민복지기준 핵심 지표 관리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영역(분야)별 측정 지표 선정 시 지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영역(분야)별 첫 번째 지표가 핵심 지표임
 - 대전시민복지기준 수립(2016.2.)에서도 영역(분야)별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음. 그 당시에도 첫 번째 과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해당 영역(분야)의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과제 설정이 아닌 지표 설정 체계로 변경하였지만,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영역(분야)의 지표 중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 즉, 중요성과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영역(분야)별 첫 번째 지표가 핵심지표가 됨
- 대전시민복지기준 영역(분야)별 핵심 지표
 - 영유아 돌봄 분야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아동 돌봄 분야는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률, 노인 돌봄 분야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돌봄 분야는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률(공공), 소득 분야는 대전형 생활임금 대상자 수, 주거 분야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 건강 분야는 자살사망률, 교육 분야는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지역공동체 분야는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예산이 핵심 지표임
 - 핵심 지표 10개 중 대부분의 지표는 생성·관리가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생성을 통해 핵심 지표의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핵심 지표 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지표 수준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대전시민 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분야의 총 지표는 49개임

- 영유아 돌봄 분야 5개, 아동 돌봄 분야 4개, 노인 돌봄 분야 5개, 장애인 돌봄 분야 5개, 가족돌봄자 돌봄 분야 4개, 소득 분야 5개, 주거 분야 4개, 건강 분야 6개, 교육 분야 6개, 지역공동체 분야 5개 등 총 49개 지표임
- 각 지표는 지표 산식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생성·관리할 수 있음
- 즉, 일부 지표는 지표 산식이 간략한 형태이지만, 지표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형태임. 즉,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각 지표의 개선은 다양한 정책, 사업, 서비스가 협업할 때 개선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는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총 49개 지표의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즉, 성과관리계획과 시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복지 수준을 총 49개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해당 영역(분야)별 지표 수준을 확인하고, 지표 개선의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실행계획은 지표 수준의 개선이 목적이므로, 지표 수준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현재는 없지만 향후 신설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여 연계하여야 함
- 또한, 지표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지표별 관리부서와 관리자를 두고, 지표 관리를 위한 생산, 관리, 평가과정을 구축하여야 함

제2절 대전시민복지기준 발전방안

1. 대전시민복지기준 지표 수준 공표 필요

- 대전시민은 현재 복지 수준을 알 권리가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음
 -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대전시민은 대전광역시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정한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수준을 알 권리가 있음
 - 지금까지는 대전시민복지기준의 관리가 미흡하였고, 과제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과제의 실행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음. 그러나 향후에는 시민복지 수준을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는 49개 지표를 생성·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표 과정은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함

2. 대전시민복지기준 공론화 필요

- 대전시민복지기준에 대한 공적 논의 구조가 필요함. 현재의 관심 수준으로는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유지가 어려움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수립 이후 관심 부족과 관리체계의 미흡, 대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이후의 후속 조치 미흡 등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관리체계에서는 대전시민복지기준이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없는 구조임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해당 영역(분야)별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공표한 후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대전시민복지기준과 지표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미흡한 수준에서라도 이를 측정, 공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전광역시에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전체 또는 해당 영역(분야)별 관련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지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대전시민복지기준 제도화 필요

-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대전시민복지기준은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였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의 책임은 대전광역시장임. 즉,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는 최고의 책임자임
 - 또한, 대전시정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임
 - 따라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_____ (2020).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_____ (2020.9.4.). 2019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교육부(2019.1.7.).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보도자료.
 _____ (2020).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_____ (2020.1.29.).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보도자료.
 김기수·문영경·류한수·오인근·이채식·배지연·김구·가참희·이근찬·허창수·곽현근(2019). 대
 전시민복지기준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 대전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_____ (2018). 2018 보육통계.
 _____ (2019). 2019 보육통계.
 _____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2020.9.29.).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보도자료.
 _____ (2020).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2017).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_____ (2018).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_____ (2019).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_____ (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_____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 (2018).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_____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_____ (2019).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9).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7). 2017 VMS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_____(2018). 2018 VMS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_____(2019). 2019 VMS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
 _____(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_____(2019). 2019년 가족사업안내(I).
- 장창수·류진석·박은정·김구·김기희·전영훈·지남석·가참희·주혜진·강은숙·이경희·임재현·
 배지연·김수영·이근찬·허창수·박노동·곽현근·김용동·최길수·박으뜸(2016). 대전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대전광역시·대전발전연구원.
- 행정안전부(2017).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_____(2018).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_____(2019).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허민숙·박진우(2020).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168호.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장학재단(2019). 지자체 이자지원. 지자체 및 기관별 지원내역.
-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국가통계포털(kosis.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교육청(www.dje.go.kr)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daejeon.childcare.go.kr)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www.ssis.or.kr)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jumin.mois.go.kr)

중앙자살예방센터(www.spckorea.or.kr)

지방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work.go.kr/index.do)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행정안전부 내 고장 알리미 정부합동평가(www.laiis.go.kr)

1365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0-6]

대전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유 미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8932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ISBN 978-89-98568-77-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